사사기 1 장

1. 사사는 무얼 하는 사람인가*?*

재판하는 사람(士師): '판관기'라고 번역하기도 했던데 요즈음 용어로는 '판사기'라야 하나*?* 평시에는 재판을 위시한 백성의 대소사를 담당하다가 전시에는 장군이었다.

2.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때이다. 사사기의 끝은 언제일까*?* 삼상에도 사사들의 얘기가 나온다*(*삼상 *8:1-2)*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

왕이 세워질 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레셋에게 정복당했다가 사무엘의 인도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다.

3. 여호수아는 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까*?*

지도자 대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셈이 된다. 인간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지만*(*삼상 *8:7)* 이 땅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인간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겠지만 독생자의 희생이 필요했다.

4.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 사방에 대적이 없었다*(*수 *11:23, 21:44, 23:1)*고 했는데 아직도 싸워야 할 적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호수아 생전의 평화는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잠정적인 평화였던 모양이다*(*참고, 출 *23:29-30,* 신 *7:22).* 수 *13:1-7*절을 참고하면 아직도 점령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있는 상태다.

5. 누가 하나님께 물었을까*?* 어떤 형태로*?*

대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을 것이다*(*민 *27:21).* 구체적인 절차는 유감이지만 알 수 없다*!*

6. 선봉부대로 유다가 선택된 인간적인 이유는*?*

제일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 유다가 이런 복 받을 짓을 했다. 어려운 때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던 유다*(*창 *43-44*장*)*를 야곱이 축복했다*(*창 *49:8-12).* 유다는 벌써부터 선봉부대였다*(*민 *2:3, 9).* 용감하게 선봉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도 선봉에 세우셨다. 사람이 판별해도 유다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매번 사람의 뜻과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전투는 누가 하든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굳이 강한 지파를 선택해야 할 이유도 없다*(*참고, 기드온의 *300* 용사*).*

7.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뭘까*(*참고, 수 *19:1, 9)?*

시므온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로 스스로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의 일부를 할당받았다*:* 유다는 잘 나갈 때 가장 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셈이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민 *26:14,* 절반으로*:* 광야에서 잘못함, 함께 사고쳤던 레위는 승승장구하는데*...).*

8. 첫 전투가 가장 어려운 전투였던 모양이다. 아도니 베섹이 그리 만만한 왕이 아니었던 증거는 무엇인가*?*

한 때 칠십 왕을 정복한 적도 있었으니*(7)*: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된 말은 작은 성읍의 통치자를 가리킨다. 어쨌든 아도니 베섹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유력한 왕이었던 모양이다. 사로잡은 적의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다. 손가락은 무기를 못 쓰게 하고 발가락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전쟁이 사람을 황폐하게 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9. 아도니 베섹*(*베섹의 우두머리*)*을 사로잡아 왜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는가*?*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도니 베섹의 왕도나 그에 버금가는 성읍이 아니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세덱이었다*(*수 *10:1).* 관련이 있기는 있을 것 같다.

10. 유다가 예루살렘을 취했다고 했는데*(8)* 아래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다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21).*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심지어 여호수아도 예루살렘 왕을 죽인 적이 있는데*...(*수 *10:23-26)*

점령을 하고 불태우기만 했을 뿐 자신들의 소유지로 만들만큼 여력이 없었던 모양이다.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400*년쯤 후, 다윗 시대에 가서야 완전하게 정복된다. 예루살렘이 요새이긴 요새였던 모양이다. 여부스 족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사사기가 다윗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11. 유다 자손이 제비뽑아 얻은 땅을 지형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산지, 남방, 평지*(9)*: 산지*(*예루살렘, 헤브론*)*와 평지*(*세펠라라고 불림*)*는 남북으로 나란하고 그 아래쪽의 동서로 뻗은 부분이 남방*(*네게브*)*이다. 그러니까 *10* 모양이다*(0*은 산지, *1*은 평지, __은 남방*!).*

12. 헤브론을 점령한 것*(8-10)*은 여호수아 때의 일이다*(*수 *11:21-23, 15:13-14).* 그 때에 두 번이나 헤브론을 점령했다*(*수 *15:13-14=20?, 8-10*은 세 번째*?).* 자랑스러운 기록이다.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후손들이 망치는 얘기가 사사기다.

13. 딸을 팔아서 성읍을 빼앗으려고 하는가*(12)?* 딸을 이용해서 어려운 일을 시킨 사람은 라반도 있고 사

울도 있는데?

고대 왕들의 포상 방법 중의 하나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용감하고도 능력 있는 신앙인을 사위로 고르는 방법일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람이 갈렙의 뒤를 잇는다.

14. 출가하면서 이렇게 땅을 탐내도 되나?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던 시절에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미덕이다. 욕심이 좀 있어야 한단다. '애살'이라고 하던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이 귀한 남방(네게브, 사막지대)으로 시집을 가지 않느냐고 우겨 결국은 샘물까지 얻었다.

15.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던 모세의 권유를 거절했던 사람들이(민 *10:29-30)* 마음을 돌린 모양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에 불쑥 언급할까?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에 협력하여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일종의 복선)이다. 시스라가 이 족속의 여인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4:17-21).*

16. 겐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이란 좋은 땅을 두고 왜 황무지로 가서 거하나?

자신들이 살아온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탓이다. 이주하더라도 비슷한 환경이어야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에게 정착하라고 아파트를 지어주어도 결국은 일 년의 대부분은 나가서 살더란다.

17. 유다가 취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다른 말로 블레셋인데? 블레셋인들도 다 쫓아낸 거야?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합체인데 가드, 아스돗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완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한 셈이다: 이들을 친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유다 산지를 타고 내려왔다가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싸웠다.

18.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철병거는 어렵나? 기도로 감기는 고쳐도 암은 안 되나?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은 사람 탓이다. 믿고 싸우면 이기게 하실 텐데 *(4:13-16,* 수 *17:16-18)* 지레 겁을 먹고 싸우지 않은 탓이다.

19. 모세가 언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을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보고시에(수 *14:9,* 민 *14:24):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얻은 땅이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열정을 지니고 있다.

20. 예루살렘은 유다 자손이 취하였다고 했는데*(8)*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일부를 유다 자손이 취했고 나머지 일부는 베냐민 자손이 차지해야 하는데 두 지파가 다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다.

21. 이기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아닌가*(22)?* 못 이기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21)?*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떡하랴? 믿음으로 나서면 이기고 믿지 못해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지는 걸! 믿는 수밖에 없다.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2. 싸우러 간 사람들이 성읍의 입구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입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입구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 통로 같은 것 말이다.

23.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떠나지 않겠다*(27)*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허점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외에도 무슨 잘못이 있는가?

힘이 없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힘이 있을 때는 부려먹으려고 그냥 두었다. 바쁠 때는 바빠서 봉사하지 못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노느라고 못하고?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은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된다*(2:3).*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올 때까지 오랜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

24.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성읍 중에는 훗날 바로의 도움으로 차지하게 되는 성읍도 있다. 어느 성읍인지 왕상 *9:15-17*을 찾아보자.

게셀: 애굽의 바로가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결혼 선물로 주었다. 말하자면 다윗의 치세하에서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25. 제일 못난 지파는 단 지파다. 오히려 쫓겨가기까지 했으니*(34)!* 그러면 그 다음으로 못난 지파는?

아셀: 못나도 다른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주도적이었지만 이 두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그들 가운데 거하였다*(32).*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는 표현과 '그들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라는 표현을 비교해 보라.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악고, 시돈은 훗날 베니게(페니키아)로 발전하면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

26.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외의 다른 지파는 승리한 적이 전혀 없었을까?

있었을 것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가보다: 결말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에는 처음의 승리가 별 의미가 없다. 반대로, 작은 승리라도 결국은 큰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실패한 이야기를 기술한 사사기에서는 초기의 작은 승리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해 버렸을 것이다.

사사기 2 장

1.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길갈에 나타나서 무언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길갈이 어떤 장소이길래 그랬을까?

길갈은 과거의 온갖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이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기념 돌비가 있고*(수 4:20)*, 눈 앞의 적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였던 곳*(수 5:9)*, 온갖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곳이다*(수 10:15, 43)*. 그러므로 지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상기시키기에 좋은 장소다. 그런 다음 보김으로 와서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닐까?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해 보면 보김에서 책망해야 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2. 하나님은 언약에 철저하시다*(1)*. 하나님께서 지키신 언약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지킬 언약은 무엇인가?

지키신 언약은 열조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것*(=열조에게 행한 맹세)*, 지킬 언약은 언약을 어긴 자*(2)*에 대한 벌로 대적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3)*.

3. '울어도 못 하네'라는 찬송이 있다. 안 될 일이 운다고 될까? 제사도 드렸는데?

믿어야지: 찬송가에는 '믿으면 하겠네'라고 되어 있다.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가슴을 쳤으니 틀림없이 울었을 것이다. 운다고 끝이 아니다. 돌아왔어야 했다. 베드로도 얼마나 울었는가!

4. 순서상으로 보면 *1-5*절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10*절 다음에.

5.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18)* 그랬다는 것이 문제다.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그 경험과 체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어야 하는데*(신 6:2)*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엘리도 실패했고*(삼상 2:12)*, 사무엘도 이 일에는 실패했다*(삼상 8:3)*.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학교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교회는 박해를 딛고 일어났지 국가가 교회를 밀어줄 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 예가 없다. 어려움과 싸우며 신앙을 가꾸어 가도록 어른들이 인도해 주어야 한다. 돈을 아껴야 하지만 아이들 신앙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 아끼지 말라.

6. 사사 시대가 비극적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10)*: 온갖 비극의 원인은 이것이다*(호 4:14)*. 출애굽 시에 애굽이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탓이다. 하나님의 가장 오랜, 간절한 소원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호 6:3, 6, 사 11:9)*.

7. 그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도*(신 4:15-28)* 말을 듣지 않던 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아세라)*은 왜 그렇게 쉽게 섬길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먹고 마시며 음란하게 섬기는 제의의 차이: 아이들에게 성경공부와 오락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정상적이라면 성경공부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 수 있도록 부모가 미리 가르쳤어야 한다.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말보다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친구나 선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현상과 비교하면 어떨까?

8. 예배에 빠진다고 즉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는 않던데? 우상을 섬긴다고 바로 징계를 하셨을까?

길게 보면 그렇다: 아마 고난을 당해도 초기에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보통 그 기간이 길면 *20*년이나 걸렸다.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오늘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웃을 일이 아니다*(요1: 3)*.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땅에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신 11:10-12, 22-25)*.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를 대비한 '젖과 꿀'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를 대비한 것인데 무엇일까?

사방의 강력한 대적들: 대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신 11:22-25)*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배신할 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대적의 한 가운데서 젖과 꿀을 즐기는 것은 자칫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화약을 지고 불 가운데서 노는 격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10.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임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예고된 것이었단다*(15)*!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런 재앙을 말씀하셨고, 맹세하셨을까?

레 *26:14-46*, 신 *28:15-68*: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었다. 먹고 살만하면 이 말씀을 잊었다. 그렇게 된다고 미리 미리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됐다.

11.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을 왜 '음란하듯'이라고 표현할까*(17)*?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음란한 짓이라고 비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섬

기는 제의 자체가 음란하기도 했다. 우리가 보기에 음란이지 당사자들은 거룩한 의식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신전의 여사제와 성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흥분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행위를 하게 하면 그 결과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온다는 식이다.

12. 사사를 세워 건져내시면 그 다음에는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19)?

지난 잘못을 속히(17)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13.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다(18)?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거나 키우셔서 일을 맡기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14.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인가, 아니면 종종 뜻을 돌이키시는가?

불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이다(삼상 15:29, 마 28:20, 히 13:8). 그러나 회개하면 뜻을 종종 돌이키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18, 출 32:9-14). 애초에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다. 언약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15.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22-23) 가나안 열국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21)?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시는 말씀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을 돌이키신 것이다.

16. 1장이 무대(본문)라면 2장은 조명(해설)이다. 1장에서는 조명이 '쫓아내지 못함(아니함)'이라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2장에서는 어느 표현에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셈인가?

언약(혹은 맹세, 1, 2, 15, 20), 혹은 언약에 대한 배신(2, 10, 11, 12, 13, 17, 19, 20):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극의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17.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탓이다.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도대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

지도자들(7절의 여호수아와 장로들, 19절의 그 사사): 근본적으로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들의 사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사후에도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도자는 내 시대에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후의 일도 생각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다.

사사기 3 장

1.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두시다니*(1-2, 4)?*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야 할 대적을 남겨두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느냐고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다.

2.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알고자 하신다*)*는 말이 옳은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아주 좁게 본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안족을 그냥 두셨다고 하면 말이 된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시련이나 시험*(*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도 따져보면 우리의 잘못을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정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도 하는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정도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로봇이나 종으로 만들지 않고 대등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종들은 잘 순종하는데 아들은 가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정리한다면*:*

***1)* 하나님께서 원했던 바는 전부 멸하는 것이었다.**

***2)*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3)*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원래의 뜻이 아님*:*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도 하는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변하기도 함*:*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정도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다니*(2)?* 하나님이 어디 육사 교관인가*?*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47),* 혹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삼상 *14:6):* 전쟁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시려는 것*(=1, 4*절의 '시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꼭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을 치러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의 의미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있으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실행함*(*살아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공부에 더 열을 내야 하고 공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아야 한다.

4.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열국을 그냥 쫓아내주시면 안될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대상으로*(=*자기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벌, 구원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결국 누가 이길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사랑이 더 크냐의 문제이다.

5. 그렇게 해서 남은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블레셋은 삼손, 엘리,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시돈 사람은 이세벨을 보내서 북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딸 아달랴까지 유다에 보내서 여호와 신앙을 초토화시켰다.

6.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그들과 뒤섞여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드냐*?*'란 느낌을 주는 단어는*?*

마침내*(5):* 그토록 금하던 일인데*(*출 *34:10-17,* 신 *7:1-5,* 수 *23:11-16)*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어른들 말은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생긴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보다 더 뛰어나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나중에 '기어코'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7.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 필연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는 않을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것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물리학의 표현에 따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따른다. 스스로 고급화되기보다는 저급화되고, 세워지기보다는 부서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스스로 저급, 퇴폐, 저질, 부패되는 것이 인생이다.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은 필연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미리 그렇게 할 일이지 전도를 위하여 결혼하지 말라. 결혼 후의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다. 솔로몬도 이방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물들게 했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7*절*)*' 이것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무슨 악을 행하였는가?

다른 악한 짓을 하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두 표현이 같은 내용이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다. 그들이 행한 악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단다.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지역과 민족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바알브올 민 25:3, 바알갓 수 11:17, 12:7, 바알브릿 9:4, 바알세붑 왕하 1:2, 바알스본 출 14:2).

9. 가나안 족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메소포타미아 왕까지 동원하시는가? 그러면 다른 이방족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여기서는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 일부를 통치하던 작은 왕국으로 보는 것이 옳다(오론테스 강이 있는 하맛 지역). 별로 흔적도 없는 왕이니까!

10.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는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셨다(오순절 이후에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내주하신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택도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옷니엘은 그 전에 앞장서서 기럇세벨에서 싸운 적이 있는 용사였다(1:13).

11. 8년의 압제 끝에 얻은 평화는 몇 년이나 가는가?

40년: 그보다 더 가야지!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도 흔히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사람의 기억력이 이게 한도인가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난을 당했던 아픔도 겨우 한 세대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나보다.

12. 압제를 당한지 8년, 구원을 받은지 40년, 앞으로 이 수치는 어떻게 변해갈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압제를 당한 기간은 차츰 길어지고 구원을 받은 기간은 차츰 짧아진다: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고통의 기간은 짧고 구원의 기간은 길다: 그래도 자식의 고통을 기억하는 아버지는 징계를 적게 주려고 하고,

40년이란 한 세대가 바뀌면 또 변한다는 뜻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한 세대를 넘지 않는 것일까?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13. 옷니엘이 죽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가(11)? 대적을 물리치는 데에는 장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신 8:12-18, 4:9):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가끔은, 훗날의 얘기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야 했던 모양이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 또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레위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을 텐데, 다들 어디 간 거야?

14.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필이면 모압과 암몬, 아말렉에게 압제를 당하는가? 하필이면 점령당한 곳이 종려나무 성읍인가? 다음 사항을 참고해서 느낌을 말해 보자.

[**모압과 암몬:**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태어난 민족으로 몇 가지 잘못이 더 추가되어서(출11:17, 민23:11, 24:10, 25:1-3, 신23:3-6)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도록 명하신 적이 있다.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최초의 민족이었으며 도말하여 천하에 그 이름이 없게 하리라(출17:14)고 하셨던 민족이다.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의 산지인 여리고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최초의 승리를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곳이다.]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던 방법으로 욕된 일을 당할 수 있다.

15. 에글론이 강성케 된 이유는 무엇인가(12)?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 우리 주변에는 괴로움, 고통, 질병, 사고의 씨앗이 숨어있다. 우리가 범죄하면 이것들이 싹을 틔운다. 우리 몸에도 온갖 균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건강하면 괜찮지만 몸이 약해지면 이것들이 득세해서 병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온갖 불행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16.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는데 왜 18년이나 에글론을 섬겼을까?

종려나무 성읍(=여리고)을 중심으로 하는 요단강 서편 지역이 압제를 당했다는 뜻이다.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고 즉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 모아 모압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에글론이 있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주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야 했던 것도 그렇다.

17. 첫 사사 옷니엘은 유다 지파였는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베냐민 지파다.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을까?

모압 왕에게 압제를 받던 지역이 대체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 대항했던 첫 사사 옷니엘이 가장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 소속이란 것은 그 때에는 전체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다는 말이다.

18.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사들도 적과 싸우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옷니엘이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

라면 에훗에게는 어떤 명칭이 어울릴까?

자객(암살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활용하셔서 쓰신다. 오경을 기록해야 할 모세를 궁중에서 교육받게 하신 것이나 세상만사가 다 허무하다는 글을 남겨야 할 솔로몬에게는 세상 부귀를 다 누리게 하셨다.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울을 불러 쓰셨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 적절하게 쓰임을 받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19. 원래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은 한쪽으로만 날이 선 칼이었다. 대적과 싸우다가 보고 배운 것이 양쪽에 날선 칼이다. 그 후 로마 군대의 기본 장비가 되었단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에훗이 거의 *1000*년 전에 그런 칼을 만들어*(13)* 쓴 셈인데?

에훗이 만만찮은 솜씨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칼로 찌른다고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가려면*(22)* 힘도 상당할 뿐 아니라 평소에 칼 쓰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아무튼 그 일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다.

20.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암살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라면 에훗의 행위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살이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정당하게 싸워야 할 대적을 상대로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이 성을 칠 때, 매복, 기만 작전을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1.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오래 기다리다니*(24)*?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잔다: 생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때로는 '용변을 보다'는 뜻으로도 쓰인다*(삼상 24:3).*

22. 직접 싸움에 나설 수도 없는 비둔한 왕이 죽었다고 이렇게 힘을 못 쓰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쳐들어오기까지는 싸움을 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비둔해서 싸움에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왕이 있고 없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양이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보다. 특히 전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3. 모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분이 좋다.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괄세하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조공까지 받아가니까. 그래도 난 모압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 왜?

매 맞는 이스라엘이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모압의 제삿날이다.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아들이 낫기 때문이다.

24.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한 일이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아버지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가 행한 일도 그렇다.

출신(아낫의 아들)과 무기(소 모는 막대기)가 도무지 사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낫*(Anath)*은 이방 여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 어느 지파 소속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도 아마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 아닐까? 마치 법명을 가진 목사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또,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로 적합하지가 않다*(참고,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맷돌).*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은 아주 우스운 말이다. 어울리지 않는 출신과 무기로 대적과 싸워 민족을 구원한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전 1:27).*

사사기 4 장

1. 에훗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끝이 남을 의미한다(적어도 사사기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그의 업적도 함께 사라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당대에 좋은 교회를 일으켜 세운 목사가 떠난 후에 쓰러지는 교회도 적지 않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사라진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글을 많이 남겼고 좋은 교회를 세우셨다. 그 분이 떠난 후에 그 영향력이 지속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2. 하솔은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된 지역*(수 11:1-14)*이니 이스라엘 경내*(북부)*에 있었다. 아마도 납달리 지역이었을 것이다*(6)*. 그 때 왕도 야빈이었는데 지금도 야빈이라고? 바로나 아비멜렉처럼 야빈도 왕을 가리키는 관직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방의 시스라가 군대장관일까?

아마도 조그마한 나라들의 연합체의 왕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시스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는 왕이었던 셈이다.

3.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다*(수 17:18)*.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이 더 잘 보였던가?

철병거(수 17:16, 삿 1:1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병거보다 더 잘 보여야 하는데*(민 14:7-9)* 쉽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그렇게 속절없이 당한 것은 그 놈의 탱크 때문이었다. 지레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이스라엘도 딱 그 짝이다.

4. 이렇게 당하는 것이 벌이라면 세 번째인데 이전과 좀 달라졌을까?

심한 학대를 당했단다(3): 이전에는 그냥 섬겼다더니 이제는 심한 학대를 당했단다. 기간은 짧았지만 강도는 더 세어진 셈이다. 한 두 번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데... 좋은 약을 개발하니까 병도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점점 면역이 생기는가보다. 약한 짓도 처음하기가 어렵지 한 두 번 하다보면 솜씨도 늘고 심장도 강해지는 법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해지니까 학대의 강도도 점점 강해진다.

5. 왜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6-7)*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여자는 목사도 안 시키면서?

어쩌면 한국보다 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자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로 불렸으니*(출 15:20, 미 6:4)* 여자라서 사사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참고, 왕하 22:14*절의 훌다*)*. 전쟁에 직접 나설 수 없다면 유능한 사람에게 그 부분은 위임하고서도 사사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여자가 어디?'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나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전혀 여자는 차별이 없었던 것 같다.

6. 드보라가 관할하던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와 벧엘 사이다*(5)*.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다. 야빈에게 압제를 받던 지역은 어느 지파의 영역이었을까?

납달리, 스불론(6, 북부지역으로 평야지대): 시스라의 압제가 심했다 해도 전국적인 것인 아니었던 것 같다. 철병거의 기동력이 떨어지는 곳 즉 산악지대는 다스릴 수 없었던 것 같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였다. 드보라는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관할 밖의 일에 관심을 보인 셈이다.

7.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한 판을 하기 위해서 다볼산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 납달리 가데스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위치한 다볼산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젖가슴처럼 생긴 산이다. 주변은 이스르엘 평원이다.

아마도 완만한 능선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가 유리하고, 그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철병거가 집결되도록 유인했을 것이다. 넓은 평지 가운데 가볍게 돌출된 산이니 철병거가 모이기도 쉬웠을 것이다*(7)*. 과단하게 철병거를 제압한 것으로 보아 병거가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도록 비를 내리신 것은 아닐까?

8. 드보라 사사가 동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용기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믿음일까?

같은 말이다: 그냥 '예' 했더라면 더 큰 공을 세웠을 텐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처럼 군소리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복된가보다. 그렇더라도 바락의 이 요청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기드온도, 모세도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신앙인이었다기보다는 약점이나 용기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임을 받았다. 없는 믿음을 있는 척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신앙도 없이 있는 것처럼 기적을 거부한 아하스가 되지 말고 없으면 없고 약하면 약한 대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은 뭐니뭐니 해도 적장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큰 공을 남에게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된다면 그리하는 것이 좋겠다. 인간은 다 연약한 것이거늘!

9. 바락의 말을 듣는 순간, 드보라가 하는 말을 보면 드보라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는가?

여인의 손에 죽는 시스라: 하나님의 예언을 그림처럼 볼 수 있었던 모양이다. 드보라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도? 적어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10.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더라*(참고, 민 10:29)*?

이드로, 혹은 르우엘: 그런데 호밥은 또 뭐야? 아마도 호밥은 처남*(NIV)*일 것이다. 장인을 의미하는 히브

리어가 처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삿 1: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11. 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앞에서 있었는데? 왜 여기서 또 언급할까?

1:16: 모세의 처가 식구들이 처음에 정착한 곳은 유다의 경내였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가 납달리 지역으로 이주하여*(11)* 심지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야빈과 가깝게 지냈다*(17)*. 이들이 시스라를 제거하는데 연루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12.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은 시스라가 듣기에는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총동원하는데 철병거를 왜 강으로 모았을까?

기손 강이 평소에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단다. 그래서 병거들이 강을 따라 달리기 쉬운 탓이다. 대부분의 도로는 강을 따라 형성된다. 평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볼 산을 택한 것도 이런 점을 이용하여 병거를 한 곳으로 집결시켜 분쇄하려는 의도를 가지셨을 것이다.

13. 대적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싸울 준비를 마치고 한 곳에 집결했다.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시려는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군대와 싸운다면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싸우자고 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다.

14. 시스라가 왜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을 쳤을까*(15)*?

병거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다. 가령 땅이 물러 진흙처럼 됐다거나... *5:21*절을 참고하면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면 병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탱크부대가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괴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5. 여자인 야엘이 시스라를 기꺼이 영접하며 서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집안끼리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헤벨의 가족은 배신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왜 또 시스라를 배신할까?

야엘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남편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사람은 참으로 복잡다단한 존재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23)*. 더구나, 국가 간의 정리라는 것은 개인처럼 그렇게 끈끈한 것이 아니다. 힘이 없거나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언제나 배신당할 수 있다.

16. 잠자는 사람에게 말뚝을 박다니? 야엘이라는 여자, 무섭다! 다른 도구가 달리 없었을까?

유목민들의 텐트를 치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단다. 그러니까 말뚝 박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단다.

17.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시스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호령하던 시스라가 표본실의 나비처럼!

18. 야빈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누구의 공로인가?

외견상 바락, 드보라, 야엘의 공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고, 말씀을 주셨다. 드보라의 말에 순종한 바락의 공로도 작은 것이 아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역사에 끼이게 된 야엘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자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겠지!

사사기 5 장

1. 어떻게 이렇게 긴 내용을 바로 노래로 부를 수 있었을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쾌지나칭칭나네 하는 식으로 화답하는 형태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유형의 화답송이라는 것이 있단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문장이 짧게 끊을 수 있는 단문 형태로 되어 있다.

2.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두령의 영솔*(7, 12)*, 백성의 헌신*(14-18)*, 여호와께 찬송*(3)*: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에 지도자가 용감하게 나서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셨다. 멋진 지도자를 만나 마음껏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여기 두령은 여성형이다. 드보라가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다*(3, 7)*.

3. 드보라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왕*(3)*은 누구인가*?*

세상의 열왕들아 들으라는 말이다. 다른 나라에 자랑하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자랑이다.

4. 하나님께서 왜 세일*(*에서의 근거지, 창 *36:9)*에서 나와서 에돔 들을 지나시는가*?*

출애굽 여정 중의 일부이다. 출애굽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그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고백이다.

5. 군대가 행진하면 지축이 흔들린다던가*?*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찢어져 물이 샌다. 세일산, 에돔 들, 시내산이 진동했다*(*신 *33:2)*. 이런 위엄의 하나님께서 이번에 드볼 산과 기손 강에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이다.

6. '대로가 비었다'는 말과 '행인들이 소로로 다녔다'는 말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는지 설명해보자.

셋 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위험하니 대로에 사람이 없고*(*사 *33:8)* 작은 길로 숨어서 다닌다. 법질서를 지켜줄 지도자도 없다. 이럴 때에 드보라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7. 새 옷, 새 신, 새 집, 새 책... 다 좋다. 하나만 빼고*?*

새 신*(God)*: 새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예전 것이 더 좋은 것도 적지 않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 즉 다른 신을 섬긴 탓에 전쟁이 닥친 것이다. 그러나 방패도 없고 창도 없는 판이니*!*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8. 바락이 소집한 군대는 겨우 만 명이었는데*(4:6, 14)* 웬 *4*만 명*(8)*?

선봉부대인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군대만 만 명이었다. 개전 이후 다른 지파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모양이다*(14-17)*.

9. 이스라엘의 방백*(9)*이란 드보라의 명을 받고 백성들을 인솔한 장수들을 가리킨다. 그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뜻일 텐데 무엇이 그렇게 고마운 걸까*?*

방패도 창도 없는 상태에서*(8)* 즐거이 헌신하였으니*(9)*: 자신도 어려우면서 힘을 다해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감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0. 흰 나귀를 탄 자는 상류층을 가리키고, 귀한 화문석*(*꽃돗자리*)*에 앉은 자들은 부유층을 가리킨다. 그러면 길에 행하는 자들*(10)*은 누구를 가리킬까*?*

전에는 무서워 나갈 수도 없던 길을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인데 일반인들, 소시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10*절은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널리 전하라는 말이다.

*11. 11*절의 번역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개역의 번역대로라면 '활 쏘는 자의 지껄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란 어떤 곳일까*?*

대적의 위협이 사라진 곳*:* 일반적으로 우물은 성 밖에 있어서 대적의 위협이 있으면 물 길으러 함부로 나갈 수 없었다. 대적의 지껄이는 소리가 사라졌으니 아낙네들의 웃음소리만 들리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라는 것이다.

12. 대적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전하면서 백성이 성문에는 왜 내려갔을까*(11)*?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성문 광장에서 상거래, 재판, 친교 등이 이루어졌다*(*창 *19:1, 23:10, 18,* 신 *21:19)*.

13. 드보라가 일어나 앞장서고 바락이 포로들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12)*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대적*(=*용사*)*을 치셨기 때문이다*(13)*. 또 누가 이런 일에 헌신하였는가*?*

남은 귀인과 백성*(13)*: 야빈의 압제 시절에 살아남아서 이번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14-17*절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14. 에브라임이 혈통적으로는 아말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는 혈통에 관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과 관련된 말일까*?*

주거지*:* 이번 전투에 참가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본래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곳*(*주로, 골짜기, 민 *14:25))* 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다*(*삿 *12:15)*.

15. 베냐민은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전투를 도운 모양이다*(14).* 말하자면 지파로 뭉쳐서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유독 용사가 많고 싸움에 능한 지파인데*(20:16,* 창 *49:27)* 왜 그랬을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에 거하고 있었으므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야빈의 압제를 덜 받은 셈이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모양이다.

16. 마길이 누구더라*?* 지파 이름은 아닌데*?*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다. 즉 므낫세 지파를 가리킨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의 동편과 서편, 두 곳을 얻었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서편의 반 지파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요단 서편에 거한 지파는 아셀, 스불론, 잇사갈 지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7. 마길에게서 나온 '다스리는 자들'과 스불론에게서 나온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 중에 어느 쪽이 지위가 높을까*?*

아마도 마길의 다스리는 자: 마길의 다스리는 자는 아무래도 지휘관을 의미하는 듯하고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는 장군의 부관, 즉 장교를 의미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18. '잇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다'는 것은 바락과 마음이 일치되었다는 말이고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은 다볼 산에 싸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잇사갈이 바락과 한 마음이 되어 싸웠다는 말이다.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지파도 있었을까*?*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16-17)*: *15*절의 '큰 결심'과 *16*절의 '마음에 크게 살핌'은 같은 말이다.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격론을 벌였다는 말이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나 듣기로' 한 모양이다. 길르앗 지방에는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가 있었으니 여기서는 *(*요단 동편*)* 므낫세와 갓 지파를 가리키는 셈이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므낫세도*)* 해변을 끼고 있다. 이들은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열중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서편*)*의 지원을 받은 잇사갈*(15),* 스불론, 납달리 지파*(18)*가 싸웠고, 므낫세*(*동편*),* 갓, 르우벤, 단, 아셀은 방관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너무 멀고*!* 언약공동체라는 정신이 많이 희박해져 있는 셈이다.

19. 전쟁의 양상을 보면 야빈이 압제한 지역이 그리 넓지 않다. 겨우 갈릴리 서편의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무슨 열왕이 와서 싸웠다고*?* 이스라엘의 대 여섯 지파와 맞붙은 열왕*?* 작은 부족들의 연합체 정도였겠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다. 그런데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는 말인가*?*

돈*(=*은*)*이란 전리품을 가리킨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리품이다. 돈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 농산물, 석유, 아편 시장 ... 경제적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놈의 욕심 때문에*!*

20.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20)?* 평소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켰다*(21)*는 표현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여 도와주신 것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격려하며 *(21)* 힘차게 달린다*(22).* 대적은 도망치느라고 바쁘고*!*

21. 전쟁에 무심했던 지파가 여럿 있었음에도 유독 메로스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 아닌가*?*

다른 지파들은 지역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아마도 메로스는 당연히 참가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야엘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24-27)*은 이들이 야엘과 극히 대조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셈이다.

22. 시스라의 어미가 왜 시스라의 병거가 더디 온다고 걱정을 하는가*?*

걱정이 아니라 전리품을 챙겨서*(30)* 빨리 오지 않는다고 안달, 혹은 불평하는 것이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23. 승리의 노래에 굳이 시스라의 어미가 하는 말을, 그것도 가상으로, 언급할 이유가 무엇인가*?*

역설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시스라를 기다라고 있겠지만 실상은 '부끄럽게도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다.

24. 또 *40*년*(31)?* 그 후에는 또 악한 길로 갔더라는 얘기 아닌가*?*

맞습니다: 또 그 길로 갔지요*!*

사사기 6 장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게 몇 번째일까?

아마 4번째(3:7, 12, 4:1): 고질병이라서 어쩔 수 없나보다. 7년이라서 다행인가? 그나마 고통의 세월을 길게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들이 행한 악이란 우상숭배다.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까? 섬기는 방법의 차이(엄숙한 제사와 음란한 축제)와 필요성(전쟁과 농사)의 차이 아닐까? 물론 그것도 오해이긴 하지만!

2. 미디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가지만 짚어보자.

모세가 망명시절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속해서 지냈다(출 2:15-22). 그 외에도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팔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출애굽의 일등 공신이네? 그러면서도 발람에게 협력하여 음행으로 24,000명이 죽게 만든 소위 고스비 사건의 배후에도 미디안 족속이 있었다(민 25:15). 병 주고 약 준 족속들이다.

3.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다고 했다(4:3). 그러나 미디안과 동맹한 이 사람들은 야빈보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들의 행위가 야빈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책임함과 훨씬 더 넓은 피해 지역: 점령하고 다스린다면 어쨌든 살 길은 열어준다. 이들은 약탈하고 사라졌을 뿐이다. 사라진 다음의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야빈의 경우에는 북부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이들이 약탈을 일삼은 지역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이다. 아마 이스르엘 골짜기에서(33) 가사에(6) 이르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4. 고대 역사를 보면 국경이 튼튼하면 사람들이 평지에서 살고 외적의 침입이 잦으면 평지를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성벽을 쌓고 살았다. 몰래 농사를 지었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산 위로 피신해야 했으니 잘 하면 굶어죽기 딱 알맞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쌓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도 빨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아픔이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면서 외적들을 이기는 방법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신 11:22-25). 그 말씀을 잊은 것이 화근이다.

5. 쳐들어오려면 추수할 때 쳐들어오지 파종할 때에 올라오나?

파종해서 자란 싹조차 자기들의 짐승들이 뜯어먹게 했다는 말이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다. 그러니 추수할 때야 말할 것도 없다. 죽으란 얘기다. 이렇게 혹독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은 것인지도 모른다.

6.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같은데(6), 26-30절을 보면 아닌 것 같고?

6절은 힘없는 백성들의 얘기고, 26-30은 견고한 성읍에 사는 잘 난(?) 인간들의 얘기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7. 모세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중간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두 모습이 공존하는 시대: 선지자가 나타나기도(7)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기도 했다(11, 2:1, 13:3).

8. 여호와께 부르짖은 백성들이(7) 선지자의 책망을(8-10)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록이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내 또 그럴 건데!

9.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8c-10b)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말이 아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낯설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신 4:10, 6:7, 11:19): 만일 잊어버리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신 4:25-28). 신명기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질책이다. 어떤 초신자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고 하더니 '신명기 이전의 모든 말씀은 신명기에서 집약되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서나 선지서는 신명기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이다'라고 요약을 했다. 놀라운 독해력이다. 초신자의 눈에도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이 그 말씀을 잊었으니 이런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

10.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일을 한다? 선지자와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다를까?

선지자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혹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22-23절 참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 말씀하신다.

11.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가?

숨어서 몰래 하느라고? 포도주 틀은 보통 포도원의 땅을 파서 설치했단다. 들킬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할 일을 좁은 곳에서 숨어서 해야 했으니 무척 불편했을 것이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다. 그런데 누군가 '큰 용사여' 했다. 아마 무척 놀랬을 걸!

12. 기드온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자신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른 것과 대적의 눈을 피하느라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판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창피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 '무엇이라고? 놀리시는 겁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쩌랴 크고 작고는 하나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니!

13. 기드온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가?

자신의 힘(14):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니 힘을 내라는 것이다. 앉은뱅이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뭘까?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것 아닐까(행 14:10)?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도 참으로 잔인한 말 아닐까? 그러나 앉은뱅이가 '어디, 한 번 두 번 해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일어서는 시늉이라도 할 때 일어섰다! 자신이 힘을 내기는 했지만 그게 자신의 힘은 아니다.

14. 기드온 봐라! 말이 많데이(13, 15, 17)?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마디 했더니 불평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진다. 이래도 되는 건가?

여호와의 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22) 하는 말이다. 불만이 있기야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퍼부을 만큼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15. 기드온의 대답(15)은 겸손일까? 사실일까?

사실일 것: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려면 무언가 그럴듯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기드온의 생각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다.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기드온만 이렇게 약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모를 일이다. 그냥 나를 불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답을 찾을 길이 없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일까?

16. 기드온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드린 예물을 보면 느낌이 좀 다르다. 얼마나 드렸는가?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염소 한 마리와 고운 가루 23 (거의 12되)라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가루로 전병을 구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17. '당신이 주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17)은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 보자'는 격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반석에서 불을 내신 것과 순간이동: 기드온이 보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22).

18.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뒤에야 기드온이 확신을 얻은 셈이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믿지 않았더라는 말인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던가?

배워서 아는 지식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다르듯이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론적인 믿음도 있고 체험적인 믿음도 있다. '이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가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하다가 예물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실감하고 나니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다. 이론과 체험의 차이와 비슷할 것이다.

19. 하나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신다. 누구는 죽자고 기도해도 답변을 잘 않으시면서 기드온에게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답을 주시니(23). 내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한 것과 그들이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20. 기드온이 자신이 쌓은 단을 왜 '여호와 살롬'(=여호와는 평강이시라)이라고 불렀을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살롬'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안심하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살롬이다.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내용상 동일한 말의 반복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를 즐거워하고 사랑할지언정 두려워 떠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다. 공식석상에서 엄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대체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를 집에서(신약의 하나님)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고요한 명상적인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통 불만을 쏟아내다가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투에 임하는 것이 살롬이다. 일신상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서는 자에게 여호와 살롬이 임한다.

21. 번제를 드리는데 화목을 하필이면 찍어버린 아세라 상으로 하라고 하시는가? 부정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못될 텐데?

번제에 쓰이는 나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다: 제사에 쓰는 나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수레나 제구를 패서 쓴 적도 있다(삼하 6:14, 24:22, 대상 21:23). 제물이나 향과 같이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참고 느 10:34), 바알의 단을 허무는 것과 같은 징벌의 의미만 있는 셈이다.

22.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인데 그가 사는 곳은 '견고한 성'(26)이었을까?

아마도 '성읍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세우는 장소나 신전을 세우는 곳이 대체로 그런 곳이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알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장소가 모두가 바로 볼 수 있던 곳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번역도 구구각각이다.)

23. 기드온이 민족의 독립을 이끌어낼 만한 위대한 지도자답지 못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상을 허는 일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 몰래 하는 것(27): 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기드온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일을 맡기셨을까? 참으로 모를 일이다.

24.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대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31)?

바알이 신일진대 알아서 할 것 아니냐?

25. 요아스에게 있던 바알이(25)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아마도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들을 변호하는 요아스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가? 바알 편? 아들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 31절 중간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다. 단순하게 아들을 지키려는 수준을 넘어선 발언이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던(27)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백만대군을 얻은 셈이다.

26. 군사들을 소집하는 것이 이렇게도 간단하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다더라. 하나님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시달릴 대로 시달린 것에 대한 반발로 한번 싸워보자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다. 기드온의 부름에 먼저 응한 지파들은 전부 약탈당할 위험에 노출된, 이스르엘 골짜기를 끼고 있거나 인접한 지파들이다.

27.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용감하게 그냥 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을까(36-40)?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분이시니(사 7:11, 말 3:10)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것이다. 믿는 척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요 20:25) 더 잘하는 일이다.

28.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기드온의 답을 빈 곳에 요약해 보세요.

12)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 13) _____

14)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 15) _____

16)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 주겠다. ↔ 17-18) _____

21) 자 이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 22) _____

23) 걱정하지 마라. 널 죽이려고 나타났겠느냐? ↔ 24) _____

13)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15)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17-18)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22) 아이고 죽었구나! 24) 후유! 죽을 뻔 했네: 말이 많다고 할까? 지도자답지 못한 말이 시내산에서 부름 받던 모세하고 참 많이 닮았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위대함을 논할 때 그를 불러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그를 불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사기 7 장

1. 미디안과 일전을 벌일 장소는 이스르엘 골짜기 주변이다. 기드온의 군대는 남쪽 하롯샘 근처*(*길보아산의 서북쪽 기슭*),* 미디안은 북쪽 모레산*(*아브람이 장막을 쳤던 곳*(*창 *12:6)*과는 다른 곳*)* 골짜기에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신다. 얼마나 되기에 그러실까*?* 양측 군사의 수를 비교해 보자*(*참고*, 8:10).*

> ***32,000*명 대 *135,000:*** 약 *1:4*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너무 많다시니*?* 더구나 일만 명도 많다고 하시니 ...

2. 미디안 동맹군이 숫자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많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군사라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알맞다'고 하실까*?*

>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절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을 만큼 적은 숫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백성들의 믿음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군사의 숫자는 줄어든다. 겨우 *300* 명으로 싸우라고*?* 이렇게 적은 숫자라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정도라면 역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단 말인가*?*

3.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혹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긍하는 것*(2,* 신 *8:17):***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구해주면 또 배반하기를 벌써 *4*번째다.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도 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최선을 다 하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4.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는 명에 기꺼이*(?)* 돌아간 사람들은, 이전에 기드온의 소집에 응한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며*(*하나님, 혹은 동족의 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을까*?*

>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23):*** 적절한 때가 되면 이들도 용기를 내어 전쟁을 도왔다. 연약한 성도, 일이 다 끝난 뒤에 늦게 온 성도라고 너무 구박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부르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3*절의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는 표현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지금 이들이 진을 친 산은 길보아 산이다. 길르앗이 아니라 길보아 산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7*절과 같은 의미*).*

5. 겨우 일만 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4)*고*?* 거의 *14*대 *1*로 싸워야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은 어딘가 이상한 측면이 있다. 비판 받을 만한 점이 없을까*?*

< 최종적으로 남겨진 *300*명은 용감할 뿐 아니라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은 주도면밀한 사람들이다. 싸움에 나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다. >

> 하나님의 의도는 용감하고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에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감하고 믿음이 좋고 주도면밀한 사람만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강조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바보같은 사람만 골라서 싸움에 나가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두려워 떠는 자는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을 먹는 방법에 따른 구분도 성격이나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소수의 군사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개처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의 차이만으로 '주도면밀하다' 혹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데...

6. 기드온의 전투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엄격하게 선발된 용사*?* 위대한 지도자*?* 신무기*(*나팔과 항아리*)?*

> **하나님의 약속*(7):***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과 그에 따른 용기를 가졌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가*!*

*7. 8*절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 백성들'은 누구일까*? 300*명*?* 돌아갈 사람들*?* 아니면 전체*?*

> ***300*명:**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나팔은 중요한 무기로 쓰인다*(20).* 다른 대부분의 성경이 의미가 분명하도록 의역을 해두었다. 우리말 개역은 우직하게 직역을 한 탓이다.

8. '내려가서 치라'고 하셨으면 됐지 요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베푸시는가*(10-11)?* 기드온에게 너무 자상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다. 겨우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시작할 믿음의 용사가 어디 있는가*?* 기드온이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그를 위로해서 격려하시는 것이 과한*(?)* 은혜 같지도 않다.

9.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격려하려고 준비한 일*(10-14)*도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다. 그게 어떻게 기적인지

생각해 보자.

하필이면 다들 누워자는 한 밤중에 일어나 꿈 얘기를 하는 적군을 만나게 하신 것: 꿈을 꾸게 하신 것이나 해몽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들 사이에서 하필이면 이런 병사를 만나게 하신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해몽하는 병사의 말대로 보리떡은 기드온을 가리킨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왕하 *4:42,* 요 *6:9*)이었으므로 자신의 말대로(*6:15*) 비천함을 상징하는 셈이다.

10. 이렇게 해몽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이미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

무방비 상태로 다들 누워있는 것을(*11-12*)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의 사기나 정신 상태가 어떠하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9*).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겠다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11. 기드온의 사용한 무기의 종류는 무엇이며 효능은 어떠한가(*20*)?

나팔: 한꺼번에 불어대면 잠자던 적군을 충분히 놀라게 할 수 있었을 것.
빈 항아리: 횃불을 감추는 것과 한꺼번에 부수는 소리로 적을 놀라게 하는 것.
횃불: 한꺼번에 나타난 횃불은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것 같은 위압감을 주었을 것.
함성: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적군을 놀라게 하였을 것.

야밤에 놀라게 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더구나 작전 개시 시간을 보초교대 시간에 맞추기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더 신중하고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 컸다. 적군은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12. 정신없이 서로 싸우면서 도망치다가 문득 적군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떡하지?

일단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수습이 어렵다. 그 사이에 기드온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군사들을 소집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들이 바로 돌아와야 했을 것이다.

13. 전투가 벌어진 길보아 산에서 보면 납달리와 아셀은 북서쪽이고, 므낫세는 남서쪽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은 동쪽으로 도망간 셈이다. 그러면 당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으므로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단 나루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겼다(*24*).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집되지 않았지만(*8:1*) 미디안 족들이 남동쪽, 즉 그들이 거주하던 곳과 가까운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기에 퇴로를 막는 역할을 했다.

14.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오렙 바위나 스엡 포도주 틀이 있었을까?

두 방백을 죽이고 난 후에 그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순서대로 말하면) '미디안의 방백 오렙을 죽였는데 그를 죽인 곳의 바위를 후일에 오렙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야겠지만 강조점이 바위의 유래가 아니라 오렙의 죽음이기에 이렇게 거꾸로 된 표현이 가능해진다. 태양이 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다. 강조점이나 관점의 차이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다. 가령, '문 닫고 나가라?'는 것이 그런 예다. 문 닫고 어떻게 나가? 요는 닫으라는 말이다.

15. 하나님께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가져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다(출 *14:26-28,* 수 *10:11, 13,* 왕상 *18:38,* 왕하 *19:35*). 오히려 은밀하게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은밀한 손길, 모르는 사람은 눈치를 챌 수도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본장 어디에 숨어있을까?

9절과 22절: 이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만물에 대한 추가 손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남발되면 곤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여기시거나 정말 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숨어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사 *45:15*).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린 성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왕하 *6:15-17*).

사사기 8 장

1.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여호수아 시절에는 '제비뽑아 얻은 땅이 작다'*(수 17:14-18)*고, 기드온과 입다에게는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1, 12:1)* 고 대들었다가 입다에게는 혼이 났다. 이런 불평분자들이 결국은 나라를 쪼개는 데도 앞장을 선다*(왕상 11:26)*.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흔히 '에브라임'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한 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 원래는 요셉의 차자였지만 야곱이 장자의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이다. 너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내 덕 아니냐는 자부심을 가졌던 지파이기에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이들을 이렇게 불평분자로 만든 셈이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셈이다.

2. 일이 잘 되면 '미리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건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머라 카도?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럴지도 모른다. 그것도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건다. 후일 입다에게 그랬다가 혼이 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이들을 다독이는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2)*: 화난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줌으로 노를 누그러뜨렸다. 자신이 행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적장을 잡은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낮추니 일이 간단하게 해결되어버렸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효과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 내의 이런 불평분자가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불평을 지도자가 잠재워야 한다.

3.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피곤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4-12)*. 어느 정도로 곤질겼는가?

양식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5, 8)*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고*(7, 9)* 도망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도*(11)* 쉬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도 *15,000* 명이나 되는 적이 지친 *300* 명을 당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에도 최선을 다 해서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4. 숙곳은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며*(창 33:17)*, 브누엘*(혹은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곳*(창 32:30)*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당시에는 갓 자손의 영역이었다*(수 13:27)*. 갓 자손은 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양식을 좀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에 왜 응하지 않았을까?

기드온이 이길지 미디안이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 쪽을 도왔다가는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지도자의 오판이 한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다. 부대라고 해봐야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부대를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던 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족이 독립전쟁을 치르는 판인데...

5. 똑같은 푸대접을 받았는데 징벌하는 방법이나 강도가 왜 다를까*(7, 9)*?

표현만 다르지 실제로는 같은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들가시와 찔레가 상징적인 표현인지 혹은 실제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극렬한 징벌을 의미하는 말이 틀림없고, 망대를 헌다는 것은 점령해서 파괴한다는 뜻이다. 한 성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6.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숙곳 방백과 장로 칠십칠 인을 꼭 징벌해야 하나?

전쟁시에는 그럴 수 있다: 평상시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르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평상시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 평상시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전쟁 중에는 전혀 불가능할 수 있다. 피를 나눈 동지들끼리 혁명을 모의하다가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혁명죄로 처형당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훗날 냉정하게 살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당시 형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전쟁이 주는 비극 중의 하나다.

7. 전쟁에서 사로잡은 적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세바와 살문나에게 자기의 형제를 죽인 사실*(18)*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의로운 심판임을 확인하려는 것: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기록은 여기뿐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기드온이 '피의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창 9:6)*.

8. 칼도 빼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라고?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말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잘 나도 애는 애다: '아이에게는 아이가 할 일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이 할 일이 있다. 우리 목을 베는 일은 네가 해라!' 는 말이다. 아무리 포로로 잡혔지만 어린 아이의 손에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9. 기드온이 정말 잘한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못이 있는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 *32,000*명도 많다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하나님의 의도가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가진 기드온이 다른 잘못을 저지른다*(에봇, 많은 아내, 자식 교육 실패)*.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곧 바로 상식이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좋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상식적인 일에 잘못을 범해서 신앙에 큰 타격을 입는 예가 적지 않다. 좋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화목한 가정,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에브라임 지파를 다독이는 솜씨는 좋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별도로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를 하더라. 다윗, 아브라함, 삼손, 모세... 한 때 훌륭했던 목사들이 교회를 말아먹더라! 그래서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 장로들이 목사의 시종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는 왜 금 귀고리가 많았을까*(24)?*

항상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소지하기 간편하면서도 값나가는 금붙이를 많이 소장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 후손은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유목과 대상에 종사했다*(창 37:25)*.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인 미디안 족속*(창 25:2)*과 친밀하게 지냈으므로 넓게는 미디안 족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다*(창 37:28)*. 그래서 기드온이 싸운 대적이 미디안 족속*(6:33, 8:5)*이었음에도 느닷없이 이스마엘 사람이라*(8:24)*고 하는 것이다.

11. 금 *1,700*세겔이면 약 *21*㎏이다*(1*세겔은 *11.4*g*).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한 종류이다*(*우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제사장의 겉옷 형태를 만든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섬겼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나중에는 의미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는다. 이게 우상숭배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결국은 파괴되어야 할 우상*(*느후스단, 왕하 *18:4)*이 되어버린 것과 비슷한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12. 또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28)?*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도 태평하면 안 되나?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게 안 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한국교회도 여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신 *4:9, 6:7, 20-25, 11:19, 32:46,* 창 *18:19)*. 그게 그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태평성대를 이어가는 방법이다.

13. 아들이 칠십 명이면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세겜에 있는 첩도 있었으니 다른 곳에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셨을까?

훗날 타락했다는 말이다: 왕이 되라는 말은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다는 말이다*(9:2*의 '다스림'이란 표현을 참고*)*.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이다.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은 기드온이 말년에 타락한 결말이다.

말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서 자신이 가로채거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 때 잘 나가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빌 *2:12)*,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하디 약한 인간인 이런 모습은 비단 기드온만의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베드로.....

14. 아들이 *70*명인데 하필이면 첩의 아들만 이름이 나오는가*(31)?*

이 사람이 훗날 큰 사고를 치기 때문이다: 이름을 날리려면 특별히 잘 하던가 아니면 크게 잘못하던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기드온의 책임이 크다. 아무데나 씨만 뿌려 놓으면 되나? 잘 키워야지! 아버지 없이 첩이 단독으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지금도 쉽지가 않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뿌려 놓은 씨가 얼마나 끔찍한 불행을 초래하는가!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가정이 무수히 많다. 그런 환경에서 가라지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사랑을, 가르치고, 베풀어야 한다.

15.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기드온과 관련해서 추측해 보자.

기드온이 지도자의 권위를 잃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잊었다. 동시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잊었다. 지도자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지도자의 타락과 상관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불가능할까?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일이다.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 않았더라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드온을 잊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도 잊는 것이다. 기드온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했어야 한다.

16. 이들이 섬긴 바알브릿은 이름이 고약하다. '언약의 주'라는 뜻이며 *9:46*에는 엘브릿이라고 부르데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게 왜 그렇게 고약한가?

하나님에게 쓰이던 표현을 그대로 우상에게 썼기 때문: 언약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데*(*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기에, 심지어 아담에게도 주셨다*)* 바알을 섬기면서 이 용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시킨 셈이니 정말 고약하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라고 준 것을 엉뚱한 우상에게 갖다 바친 셈이니*(*↔호 *2:8)!*

17.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음란*(33, 2:17,* 출 *34:15)*: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음란한 것에 비유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는 음란함이 필수다. 물론 본인들은 그것이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

만. 과거 유럽에서 여자의 나체를 화면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여신의 경우에는 괜찮았다. 비너스의 탄생? 여신이니까 괜찮다. 그러다가 어느 화가가 매춘부의 나체를 그렸더니 난리가 났단다. 어떻게 이런 추잡한 짓을 하느냐고? 눈감고 아웅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사기 9 장

1. 끝에 가보면 세겜 사람들은 거의 전멸을 당한다. 이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이다. 또 다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다면 무엇일까?

소위 같은 혈육이라는 말에 무조건 밀어준 탓*(3)*: '그는 우리 형제라'*(3)* 이 말이 모든 화근의 원인이 된다. 같은 교인이면 덮어놓고 표를 주는 것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하나 같은 교인에게 줘야 하나? 동향? 동문? 동족? 동문? 한 집안? 이런 것을 좋아하다가 멸족 당한다. 교인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다가 교회를 말아먹는 수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친인척 비리, 부자세습...

2. 아비멜렉에게 한 수 배우자. 정치적으로 큰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 혹은 무엇이 필요한가?

선전선동*(2)*, 거사자금*(4)*, 정적제거*(5)*: 사람을 끌어 모으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방탕하고 경박한 인간들을 부리려면 돈 이상의 것이 없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았다 싶으면 무자비하게 정적을 없애야 한다.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전 5:15, 마 6:31-33)*.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다 필경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약 1:15)* 전형적인 폭군의 모형이 되고 말았다*(훗날 압살롬도)*. 인간의 정치라는 것이 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도 죽고 백성도 죽이는 결과도 비슷하다.

3. 방탕하고 경박한 인간을 부려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제일 쉽다: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을 움직이는데 돈이 가장 위력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체제가 된 오늘날은 더욱 심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돈의 버는 일과 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마저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4. 거사자금이 은 *70*개*(=70*세겔*)*면 그리 큰돈은 아닌데?

기드온이 왕처럼 살기는 했어도 막강한 군대나 호위병을 거느린 것은 아니었다는 증거다. 얼마 되지 않는 건달패를 데리고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으니! 그 밑천으로 최소한 금 *1700* 세겔을 차지 할 수 있으니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 참고로 바알브릿 묘의 '묘'는 집*(*바이트*)*이란 뜻이다. 즉 바알의 신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자기 형제를 모두 죽이는 이런 비극*(5)*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먹을 게 없는데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 돈과 권력이 없었으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권력*(2*절의 '다스림'*)*이 있었으니 그것을 차지하려고 이런 칼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드온이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다. 다른 재산이나 금에붓은 부수입이었을 것이다.

6.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세겜 백성과 함께 느닷없이 등장한 밀로 족속*(6, 20)*은 도대체 누굴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추정한다면?

아마도 아비멜렉의 모계*(1*절의 '외조부의 온 가족'*)*가 아닐까?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방여인을 첩으로 둔 셈이었다. 부인을 많이 둘 능력이 있다면 이방여인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잘났다, 잘 났어! 참고로 밀로는 토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채를 쌓고 그 속을 흙으로 채워 넣은 망대이다. 그래서 종종 밀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삼하 5:9, 대상 11:8)*.

7. 세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왜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외쳤을까*(7)*?

가깝기 때문이다: 세겜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에 있다*(수 8:30-35)*.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이 두 산 위에 올려놓고 율법을 낭독했던 곳이다*(*최초의 총회 개최지*)*. 바로 그 때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 산에서*(신 11:29)*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다니!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도착지*(창 12:6)*, 히위족속들의 거주지*(창 34:2)*, 여호수아의 마지막 총회 장소*(수 24:1)*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기드온의 작은 실수가 유서 깊은 세겜을 망치고 만다.

8.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한다*(7)*. 그러면 그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15)*, =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16)*: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사를 것이다*(20)*는 것이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결국 요담을 말을 듣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으므로 가시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불에 타고 말았다*(56-57)*.

9. 요담의 비유는 어떤 성격의 말인가? 권고? 회개촉구? 협박? 호소? 아니면?

저주*(57)*: 아무런 힘도 없는 꼬마*(*말째 아들*)*의 이런 말을 듣고 돌이킬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결국은 호소나 권고라기보다는 저주일 수밖에 없다. 나무는 불에 제일 약하다. 그런데 불이 나와서 사를 것이라고 한다*(20)*. 나무에게는 가장 끔직한 저주다.

10. 요담의 비유에서 감람나무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을까*(9)*?

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자리를 비워두면 악한 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나마 덜 악한 자가 앉아있기라도 해야 한다. 가장 적합한 인물

이 적합한 자리에 앉으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11. 좋은 나무들의 대답에서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을까?

'버리고' 와 '나무들 위에 요동': 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지도하면 안 될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마 *23:23)* 지혜가 필요했다. 교회 일만 하느라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실도피주의가 된다.

12. 좋은 나무들과 비교하면 가시나무는 어떻게 다른가?

장점은 하나도 없으면서 협박 공갈에 능하다*(15)*: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다고? 그 그늘에 피하는 것 자체가 찔릴 위험이 있는데도 그늘이 있다고 우긴다. 가시나무는 자신이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른다. 가시나무의 말은 과장(불), 협박(백향목을 태워), 회유(내 그늘?)일 뿐이다.

13.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무의 순서가 맞는가? *1*순위가 포도나무 아닐까?

감람(올리브)나무가 훨씬 더 용도가 많고 귀한 사역에 쓰인다: 감람열매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식품, 연료, 의약품)에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나무란다. 더구나 왕이나 제사장의 임직식 때 붓는 기름과 성막의 불을 밝히는 등대의 기름도 이 나무의 열매에서 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포도나무가 *1*순위겠지만 저쪽에서는 삼등인 모양이다. 그 쪽에서는 감람나무 농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14. 요담이 의미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한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 기드온: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런 짓을 했으니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15. 가족이 몰살당하고 단 한 명이 살아남는 류의 이야기는 중국 무협지의 단골 메뉴다. 그런 이야기와 요담의 얘기는 어떻게 다른가?

스스로 힘을 길러 복수하는 것과 달리 요담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자신은 복수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무술 수련이나 군사 양성 따위)을 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롬 *12:19)*.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요담이 세겜 성 사람들에게 비유로 심판을 외친 것처럼!

16. 이렇게 악한 아비멜렉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삼년이나 버려두셨을까?

심판하시는 과정일 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잔칫날 잡으려고 짐승을 살찌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멋진 인생 같아 보여도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면 기뻐할 일이 아니다. *23*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수하에 악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 아비멜렉의 지도력이 한계에 부딪힌 탓이요 세겜 사람들의 맹목적인 지지도 식어버린 탓이다. 그게 겨우 *3*년이다.

17. 아비멜렉이 왕이 된지 *3*년 만에 서서히 반역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반역의 징후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아비멜렉을 고립시키는 것*(25)*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26)*: 아비멜렉이 세겜에 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아루마, *41)*에 있었다. 산적처럼 산꼭대기에 숨어서 아비멜렉에게 가는 길목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에벳(에베드는 종이란 뜻)의 아들이니 천민 출신이었던 모양이다.

18. 새로운 지도자는 이전 지도자를 헐뜯어야 하는 모양이다. 가알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비하하는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28)*: 세겜의 아비 하몰이란 히위 족속으로 야곱 때에 세겜의 추장이었다(창 *34:2)*. 그러니까 하몰의 후손은 몰락한 옛 권력자의 후손인 셈이다.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여 하층 계급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셈이다. (혹은 가알이 히위족을 선동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이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동족간의 싸움이므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19.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는 말과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는 말*(29)*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

가알의 허풍*(28-29a)*에 백성들이 동조하자 허공에 대고 큰 소리를 쳐대는 것*(29b)* 아닐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스불이 아비멜렉이 임명한 세겜의 장관이었지만 군사력은 없었던 모양이다.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새벽에 공격하라고 전했다*(31-33)*. 가알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큰 소리만 쳐대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인 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는 이런 가알이 적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20. 스불이 말하는 매복 작전*(32-33)*이 일반적인 매복과 어떻게 다른가?

숨어서 기다리는 대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매복은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습하는데 여기서는 적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해 뜨기를 기다린다*(33)*. 스불의 작전은 성문이 열린 후에*(35)* 싸울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알을 충동질해서*(38)* 싸움을 시키려는 것이다. 애들 싸움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 가알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친 큰 소리에 발목이 잡혀 물러설 수도 없는 과대망상증 환자이다. 아예 성문을 닫아걸고 버텼으면 아비멜렉도 쉽게 세겜성을 공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41*절 참고*)*.

21.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스불의 처지를 참고로 생각해 보자.

세겜의 장관인 스불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을 보아서 반역의 강도가 아주 세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스불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가알을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반역하는 백성들을 제어할 수는 없어서 반역에 동조하는 척하고 있었다. 성을 공격하는 아비멜렉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45, '종일토록' 참고).*

22. 가알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성 안으로 피했다. 아비멜렉도 세겜 성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철수했다*(41a).* 철수한 척하고는 매복을 하고 있었다. 이번 매복이 지난번과는 어떻게 다른가?

기습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전멸시켜버렸다. 아마도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나온 백성이었을 텐데... 아비멜렉의 악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23. 아비멜렉이 일차전에서 많은 군인들을 죽였고*(40),* 이차전에서는 일하러 나온 백성들들을 전멸시키고*(43-44)* 성안에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죽였다*(45).* 마지막으로 세겜 망대의 사람들*(*지도자급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을 화공으로 몰살시켜버렸다*(46-49).* 남은 일은 무엇인가?

이제는 자신이 죽을 차례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다가 자신도 버려짐을 당한다. 데베스*(*세겜 북동쪽 *18km)*를 멸망시키는 일?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24.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다급해지니까 엘브릿*(=*바알브릿*:* 언약의 주, 여기서는 바알을 가리킴*)* 신당의 비밀스러운 은신처*(=*보장, 아마도 굴*)*에 숨었는데 결국은 무덤이 되고 말았다. 신당에 일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신처가 왜 있었을까?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으니 그런 용도로 쓰던 지하동굴 같은 곳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은 그들에게 거사자금을 대주었다. 나중에는 무덤까지 주었다. 우상이 주는 것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독약이다.

25. 이렇게 포악하고 무자비한 아비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가?

여인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생각하는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다니?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말은 치욕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사울이 그나마 조금 낫네*(삼상 31:4).*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켜야 할 명예가 겨우 그런 것이라고? 지켜야 할 명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노인네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가 너무 너무 시끄럽다!!

26.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 아비멜렉이라는 못된 인간을 왕으로 삼은 탓인가?

좁게 보면 그렇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기드온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은 탓이다. 사사시대의 모든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잊은 데서 오는 징계다. 하나님을 잊었기에 아비멜렉같은 인간이 득세를 하는 것이다.

27. 이런 참혹한 일이 생겨난 근원을 더듬어보면 기드온의 실수도 기여한 바가 크다. 위대한 기드온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다. 이스라엘이 이민족*(*異民族*)*의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달래고 달래서 일을 맡기셨다. 아무래도 기드온이 잘 나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대체로 이민족에게 압제를 받았던 기간은 길어야 *20*년을 넘지 않는다. *8*년, *7*년, *20*년 정도 압제를 받았지만 평화로웠던 기간은 적어도 *40*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짧은 기간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긴 시간의 평화를 주셨다.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산다면*(cf 8:34)* 이런 수난의 역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사기 10 장

1. 두 사사 돌라*(*잇사갈 지파*)*와 야일*(*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전혀 없나보다*(1-5).* 사사의 행적이 기껏 아들 삼십에 관한 것뿐이라*?* 어떤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사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다. 사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말이다. 아비멜렉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고 *45*년*(23*년 *+ 22*년*)* 동안은 잘 지냈네*!*

2. 야일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을까*?*

아이들 *30*명이 각자 소유의 승용차*(=*어린 나귀*)*를 가진 셈이다*:* 하봇야일이란 명칭은 사사 야일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다*(*민 *32:41,* 신 *3:14).* 위대한 조상 야일이 차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3. 우상숭배를 병으로 치면 이전과 비교하여 *6*절에는 어떤 특징이 보이는가*?*

병이 점점 더 깊어진다*(*'다시'는 원어로 증가하다는 뜻*):* 이스라엘은 온갖 잡신을 다 끌어들였다*(*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생각만 부정하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과 잡신들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 온갖 잡신들과 우상이 들끓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4. 이스라엘이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겼네*(6)?*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나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탓이다 *(*롬 *1:28):*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퇴보하는 걸까*?*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가*?* 아무리 선한 것을 입력해도 악한 것이 출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런 결과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신 *31:16-21).*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미리 말씀하셨다*(*신 *28*장*,* 레 *26*장*).*

5.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은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왕, 가나안 왕,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들이었다*(*주로, 북, 혹은 동쪽*).*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니 이제 새로운 민족이 등장한다. 블레셋은 이전의 민족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남서쪽에서 침입함으로 그동안 고통을 덜 겪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마저 압제를 당한다.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블레셋*(*팔레스타인*)*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6.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인가*?*

6*절의 '다시'*: 이전에는 '또'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3:12, 4:1, 6:1).*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 '마침내'라고 하였다*(3:5).* 마침내, 또, 또,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한 것이다.

7.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이 잘한 일이 있다면*?*

고통을 당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신 *8:12-14, 31:20),*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신 *11:13-16)*은 불가능한 일일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8. 6-16*절에 제목을 붙여보자.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의 근심*:*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민족에게 짓밟힌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시니 근심할 수밖에 없다. 짐짓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매달리니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의 회개가 사사시대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한 회개일 것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사랑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신다. 또 누구를 불러서 구원할까*?*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근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위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9.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회개도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이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의 회개가 가장 진지한 회개였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스스로 돌이킨 점*(10):* 비록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긴 했지만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지 않아도 돌이켰으니 스스로 돌이킨 것이라고 하자.

회개하고 바로 실천한 점*(16):* 스스로 이방신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모르겠다고 해도 끝까지 매달린 점*:* 하나님께서 친히 매를 들어도 매달리는 것이 잘 하는 일이다.

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민족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는가*?*

애굽 사람은 출애굽 때, 아모리 사람은 광야에서 행진하던 때, 나머지는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다*(*시돈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보아 아마 하솔 왕 야빈에게 협조하였을 것이며, 마온 사람들은 아마 아라비아 지역에 거하는 미디안족 일 것이다, 대하 *26:7).* 그렇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1.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면 포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한

번 안 하겠다고 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13-14)*? 계속 용서를 빌면 하나님도 이랬다저랬다 하시는가?

그래도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하는 것은 왠지 불경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변함없이 살아 있으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말씀보다는 그 이면의 속뜻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 공부할라카거든 학교 때려치아라' 한다고 당장 학교 안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구원치 않겠다'는 말씀은 진짜 영영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에게 매를 대는 아비의 가슴 아픔을 나타내는 말이다.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매달리면 차마 더 이상 초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고 하시는 데도 한사코 매달리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12.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14)*

삐친 척 하면서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난 모르겠다' 혹은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식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러실까?

13.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시는가?

징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 혼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이다. 못된 자식은 돌이켜도 근심거리다. 그러나 고민하신다는 자체가 아직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못한다는 증거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14. 도무지 본을 볼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용을 기록한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라'는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런 노력에도 이스라엘은 끝내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실족하지 않게 돌보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사기 11 장

1. 큰 용사인데 왜 쫓겨나야 했을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서자였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훗날에 큰 용사가 되었다는 말이다. 쫓겨날 때는 큰 용사가 아니라 아마 싸움질이나 하는 서자, 집안의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싸움을 잘 했다는 얘긴데,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사람이 힘을 발휘한다. 공부는 않고 싸움질만 한다고 쫓겨났다가 권투나 레슬링에서 세계챔피언이 된 격이다.

말썽만 부린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격려해야 한다. 베트남의 전쟁영웅이 미국으로 돌아와 사회부적응아가 되어 사고를 치는 내용을 영화화한 것이 람보다. 미국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 영웅이 될 텐데!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이 있어야 한다. 입다가 그런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엉뚱한 사고를 치지 않은 요인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다.

2. '길르앗'이란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1-5)*?

동음이의어(지명, 인명): 길르앗 사람이란 넓게는 요단 동편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도 있으나*(신 3:10-13)* 좁은 의미로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가족의 후손일 수도 있다*(민 26:29)*.

3. 만약 전쟁이 없었더라면 입다는 무엇이 되었을까?

깡패 두목 아니었을까? 전쟁이 터지니 '장관이 돼라'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던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런 변화 이전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율법과 역사에 대해서 잘 알 뿐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서원을 잘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으나 장로들과 협상하는 것과 암몬 족과 싸우는 과정을 보면 신앙도 좋고 지혜롭기도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왕이 되라'고 하지 왜 장관이 되면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가*(8)*?

우선은 급한 것이 전쟁을 이끌 군대장관이기 때문: 전쟁에서 이기면 왕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결국은 머리와 장관으로 불려간다*(11)*.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에는 암몬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서자라고 쫓아냈던 입다를 왕으로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도와달라는 것이냐?' 천한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17)* 그 잘난 장로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아쉬운 걸 어떡해? 그러니 평소에 잘 났다고 뻐기지 말아야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심지가 굳고 깊이가 좀 있어야 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6. 길르앗 장로들의 말에 따라 전쟁터*(미스바)*에 나온 입다가 하나님께 고한 자기의 말이 무엇일까?

장로들과 약속한 내용*(10)*이었을 것: 서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시라는 내용일 것이다. 참고로 미스바는 야곱이 외삼촌과 언약을 맺은 장소*(창 31:48-49* 갈르엣→길르앗, 미스바*)*, 암몬과 대적하던 장소*(10:17)*이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던 미스바는 베냐민 지경의 미스바로 다른 곳이다.

7. 싸우기 전에 일단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이 입다의 생각일까? 상식일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신 20:10)*: 정확하게 어느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다.

8. 암몬 왕의 요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무리한 주장인지 암몬 왕의 말에서 답을 찾아보자*(13)*?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게 벌써 *300*년 전 일이다. 얍복강은 길르앗을 양분*(*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경계*)* 하고 아르논은 아모리*(*한 때는 암논*)*와 모압의 경계이다.

9. 입다의 대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15-26)*.

우리는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15-22)*. 아모리 족과 싸워 이겼을 뿐이다: 땅을 되찾고 싶거든 아모리 족에게나 알아보라는 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20-25)*: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주신다면 거부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부하지 못한다. 발락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고로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다*(*암몬은 밀곰을 섬겼다*)*. 아마도 암몬 왕이 모압 출신이었던 모양이다.

그 땅이 너희 땅이라면 왜 *300*년 동안 찾지 않았느냐*(26)*?

10.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던 민족은 어느 민족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세 민족 모두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에돔과 모압이 통행을 거부했으므로 가데스에서 고민하다가 우회해서*(*둘러 행하여*)* 왔다. 그런데 아모리족은 통행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11.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였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왔다는 말인가?

에돔과 모압의 동편 경계 바깥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ㄱ자 형태로 정말 먼 길이었다.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는데 아모리 족이 싸우려고 덤볐고 우리는 싸워서 이겼을 뿐이다. 암몬과는 아무

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12.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왜 언급하는 걸까*(25)?*

'네가 발락보다 나으냐?'는 것이다: 발락은 돈으로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모압왕이다.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감히 해보겠다는 거야?

13.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실수하지 않도록*(*서원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시지 않나*?*

여호와의 신은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해야 한다.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믿음은 좋은데 상식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

14. 입다는 누가 영접하러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니! 아마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방 땅에서 듣고 본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많이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능한*(?)* 부흥사들은 차근차근 생각해서 서원하기보다는 흥분한 상태로 헌금을 작정하도록 유도하는 모양이더라. 집에 가서 부부가 상의하고 작정을 하면 안 되는가*?*

15. 입다는 어떻게 암몬과 싸워 이겼는가*?* 가령, 기드온이나 다른 여호수아의 전쟁기록과 비교해 보자.

자세한 기록이 없는 셈이다*(32-33:* 겨우 두 절*).* 입다의 경우에는 전쟁의 경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으며 서원을 어떻게 갚았는지가 중요하다.

16. 입다가 딸을 향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지 못한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지,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신이 잘못하여 생긴 일에 대해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7. 원문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영어성경의 *37, 38, 39*을 찾아서 읽어보자. 무엇이 다른지*?*

죽었다는 말이 없다: 원문에는 죽었다는 말 대신에 영어의 *'virginity'*라는 단어가 반복된다*(*처녀로 살았다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말 성경이 무리하게 번역한 것일까*?* 서원할 때 분명히 번제로 드리겠다*(31)*고 했으므로 무리한 번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입다의 딸이 처녀로 평생 헌신했다고 하는 주장도 강하다.

18. 입다의 딸에게 한 마디 해보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버지보다 기꺼이 순종하는 딸이 더 위대해 보인다. 아마도 하나님의 평가에는 딸이 더 큰 점수를 얻었을 것이 틀림없다.

사사기 12 장

1. 에브라임이 길르앗의 남쪽에 있는가*(1)?*

정확하게 말하면 남서쪽이다: '북으로'라고 번역된 말*(zaphone)*은 '사본'이라는 지명일 가능성이 더 크다*(수 13:27)*. 마치, 남방이라기보다는 '네게브'라는 지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창 12:9, 13:1)*. 요단 동쪽 *5Km*에 있는 갓 지파에 속한 도시로 미스바와 멀지 않다.

2. 누구 말이 맞을까? 에브라임은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입다는 불렀다고 하고?

아무래도 입다의 편을 들어야겠다. 에브라임이 이런 짓을 가끔 했으니 말이다. 기드온 때에도 그랬다가 재미를 봤지*(8:1-3)*?

3.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돕지 않더니 다 끝난 뒤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을까*(3)*?

있다: 반드시 도와야 할 때 돕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방해꾼이 될 수 있다. 더럽고 치사해도 미리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낫다.

4. 입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한다*(3)*. 에브라임은 무엇 때문에 따지는가?

자존심 때문에: 애굽에서 장자노릇을 했고*(창 48:14-20)*, 여호수아를 배출했으며 실로에 성막을 안치함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다. 그래서 자존심 하나는 심히 강했던 지파다.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얕잡아 보거나 조롱하는 말이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던 것처럼!

5.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낸 방법이 *[ʃ]*와 *[s]*의 구별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지방에 따라 안 되는 발음이 있다. 경상도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이 '쌀'이다. '쌀' 해보라면 거의 대부분 '살'이라고 한다*([w]*도 잘 안 된다, '관광'을 '간강'이라고 하듯*)*.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지방 사람과 싸우지 말 일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의 쌍자음*(*따, 짜, 빠, 까*)*을 따라 하기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6. 그렇게 죽은 사람이 *42,000* 명이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왔다는 말인가? 동족간에 참 별나다. *300*년 전 지파 전체 남자의 수가 *32,500*명이었으니*(민 26:37)* 그 동안 많이 번성했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타격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멸절되었을까?

여전히 기고만장하여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쪼개는 주역을 담당한다. 번성할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창 48:19-20)*.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헌신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쓸데없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이스라엘에 고통만 더 한 지파가 되었다.

7. 사사*(*입산*)*가 잘 한다! 백성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해야 할 사사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일에 앞장을 섰으니*(9)*... 그래도 사사 노릇을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 다른 역본을 참조하자.

'타국'이라기보다는 '다른 집안*(*지파*)*'으로 번역해야 한다. 아들과 딸을 전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계파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 아니었을까? 사사들이 대체로 자기 지파나 가까운 지파 내에서 활동한 것이나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의 엄청난 내전을 겪은 다음의 사사였음을 고려해 보면 충분한 가능한 일이다.

8. 세 사람의 사사 입산*(8-10)*, 엘론*(11-12)*, 압돈*(13-15)*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사가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말이다*(*입다로부터 *31*년 동안*)*. 그러니 자식 얘기나 결혼 얘기만 하는 것이다. 간증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행복일 수도 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삼손이라는 할 말이 많은 사사가 등장한다.

사사기 13 장

1.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압제를 40년이나 당하게 하신 것: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다. 메소보다미아의 *8*년*(3:8)*, 모압에 *18*년*(3:14)*, 야빈에 *20*년*(4:3)*, 미디안 *7*년*(6:1)*, 암몬 *18*년*(10:8)*인데 비하면 가장 오랜 압제보다 배나 더 긴 기간이다. 이쯤에서 완전하게 돌아서야 하는데...

2.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라*(*이삭의 어머니*)*, 한나*(*사무엘의 어머니*)*, 수넴의 여자, 엘리사벳*(*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삼손의 어머니*)*, 라헬도 이 범주에 들까*(*레아에 비하면 여기에 끼일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체로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아마도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는가? 나의 불행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3. 마노아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마노아에게서 답을 찾으려면, 자식이 없던 집에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4. 나실인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한다*(*민 *6:1-4)*.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엄마도 나실인인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 엄마가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의미*(*태교*)*도 있겠지만 보통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인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말이다. 뱃속에서부터 포도를 멀리한 아이다. 그런데 여자하고 노는 걸 좋아하게 되다니...

5. 잉태치 못하던 자가 잉태하게된 것*(3)*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사람에게도 노력해야 할 일이 있는가*(4)?*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슈퍼맨처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아주 관계가 밀접하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숙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 못난 자녀가 되기도 한다.

6. 삼손만큼 유명한 사사는 없다. 그렇게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의 사역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본문에서 대답을 찾는다면?

삼손의 사역은 구원의 시작일 뿐*(5)*: 삼손에게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무엘, 사울과 요나단에 이어 다윗 때 가서야 끝이 난다. 구원 사역의 시작 뿐 아니라 완성까지 그의 몫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완성할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삼손밖에 없었던 걸까? 아무나 붙들어서 헐크처럼 변화시켜 일을 단박에 끝내는 식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전에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7. 이 여인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6)*는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선지자*(=*사람*, 10, 13)*로 여겼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까? 선지자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징벌을 당하던 시대에 선지자를 이렇게 겁내는 사람이 있었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걸까?

8.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왜 확인도 해보지 않았나?

두려워서: 두려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쁜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마련이다.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는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래야 최선의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웃으면서 내려야 한다.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9.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5)*과 이 여인이 남편에게 전하는 말*(7)*을 비교해 보면 같은가?

내용상으로 동일하다. 자기들이 낳을 아기가 평생*(*영원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이 되기로 서약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았는데 훗날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었다.

10.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면서 하는 택도 없는 말을 마노아는 믿었는가?

믿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8)*는 것을 묻기 위함이었다.

11. 기도는 마노아가 하는데 기도의 응답인 사자를 왜 부인에게 보내나*(9)?*

정답 없음: 부인이 더 지혜가 있어서? 부인이 전에 나타난 사자의 모습을 알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답은 없다. 삼손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이 부인이기 때문은 아닐까? *13*절의 '그가 다 삼가서'라는 표현의 원문은 '그녀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라'는 말이다. 진짜 주의해야 할 사람

은 태어날 아기의 어머니라는 말이다.

12. 마노아가 듣고 싶어하는 아이 양육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는 부인에게 말한 그대로란다.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에게 맡겨진 일이다. 중요한 원칙만 분명히 일러준 셈이다. *13*절은 '그의 관습은 무엇이며, 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이다. *(원어확인)*

13. 포도 안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14)*? 포도주 안 먹는다고 위대한 인물이 될까?

먹는 낙을 없애버리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도가 단순한 과일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는 가장 중요한 주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것은 먹는 낙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비유컨대 한국에서 쌀 외에 먹을거리가 거의 없던 시절에 쌀로 된 것을 먹지 말라는 것과 비교하면 비슷할지도 모른다.

14. 마노아가 준비하려는 것*(15)*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하라는 것*(16)*은 무엇인가?

마노아가 손님을 접대하려고 하자 사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마노아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로 여기고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사자의 말은 '자기에게 상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는 것이다.

15. 이름이 기묘라? 어디선가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사야에서 메시야를 가리키는 말이다*(사 9:6)*: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사야에서는 명사형인데 여기는 형용사형이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다.

16.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이적을 행하였는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꽃처럼 사라짐*(20)*: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진 세대는 익숙한 장면이라서 별로 놀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이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기독교는 이런 이적을 동반하는 종교다.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든다. 사자가 행한 진짜 이적은 불임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이다*(24)*.

17. 부인이 제대로 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달려가 묻고 제사를 드린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사를 받고 사라지고 나니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고서 나서야 그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든 것이다. 이제는 부인이 바른 소리를 해서*(23)* 위로를 받는다. 죽이 잘 맞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창 32:30)*, 기드온*(6:22-23)*, 이사야*(사 6:5)*도 죽을 줄로 알았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이럴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히 4:16, 10:19-20)*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런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다.

18. 마노아의 아내는 무슨 근거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가?

제사를 받으신 것과 찾아오신 것과 일을 맡기신 것*(23)*: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한 셈이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사를 받고 죽이신다면 더 더욱 이상하지 않은가!

19.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삼손이 또래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복은 특별히 힘이 센 것, 감동은 그 힘을 써야 할 방향을 잡았다는 뜻일 것이다.

20.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더 자세한 셈이다. 수태고지, 성장 이야기는 비슷한 반면에 다른 관련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중이 높게 다루어질까?

블레셋에 *40*년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을 하신 탓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도 삼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다. 더 온전한 구원자가 와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협력해야 할 인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도에 관한 문제다.

사사기 14 장

1. 잘못되는 일도 출발은 보는 데서 시작된다*(1, 창 3:6)*.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눈을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블레셋 여자를 왜 보냐? 안 볼 수는 없는 걸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정립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아보여도 부모의 말처럼 할례없는 백성이라면 좋아지지를 않아야 하는데? 그런 눈을 미리 갖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어차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설령 보더라도 좋아지지 않을 만큼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두는 것이 좋다.

2.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사랑하느냐? 지극히 정당한 얘기 같은데 왜 삼손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까?

연애할 나이가 된 아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부모도 하나님도 다 버리는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도 그 정도의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먼저 빠지는 수밖에 없다. 미리 그렇게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막상 일이 터지면 감당이 불감당이다. 정당한 얘기조차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3.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가*(14)*? 그러면 삼손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삼손에게 잘못이 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당시의 세태*(21:25)*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삼손의 훗날의 행태를 보면 삼손에게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성경신학)* 분명히 삼손에게 그런 경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성향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부족한 시대에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부족한 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사람이 등장할까? 사무엘? 다윗? 예수! 나는?

4.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사람마다, 때마다 다르다: 자원하여 헌신하게*(출 35:21, 26)*, 가르치게*(출 35:34)*, 전쟁을 그만 두게*(대하 18:31)*, 예언하게*(삼상 10:10)*, 분노하게*(삼상 11:6)* 했다. 삼손에게는 힘으로 나타난다. 삼손의 괴력은 태생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힘이다. 거라사의 광인이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은 귀신의 힘이다.

5. 죽은 사자의 몸에 웬 벌떼가?

바싹 말라버린 사자의 시체에 벌이 집을 지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다는 뜻이다.

6.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시절에 피정복민과 정복민 사이에 이렇게 쉽게 결혼이 가능했을까?

피정복민이라도 탁월한 인물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미 삼손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것이 나타났었다*(13:25)*.

7. 내기를 좀 심하게 걸었네?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랬을까? 아니면 시비를 건 것이었을까? 식민지 백성이 이렇게 간 크게 노니 블레셋 친구들인들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아마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삼손이 다른 블레셋 사람을 칠 이유가 없다. 자신만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화를 돋웠기 때문에 다른 블레셋 사람을 칠 구실이 생긴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를 내고 돌아와 버린 것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8. 삼손의 퀴즈는 '가장 강한 짐승이 내놓은 가장 단 음식이 무엇이냐?'라는 셈이다. 가장 강하면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인데 답을 알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특이한 현상을 물었기 때문이다. '사자가 준 꿀'이 정답이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면 현장에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싱거운 느낌이 들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퀴즈가 통했던 모양이다. 특히 퀴즈나 유머는 문화권이 다르면 전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다. 때로는 번역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9. 동무라는 녀석들도 이상하다. 그만한 일로 신부를 이렇게 협박하다니?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태가 심각해진 모양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집안싸움으로 번진 격이다. 거기다 민족 감정이 뒤엉키면 독립전쟁으로 번진다. 광주학생사건처럼!

10. 여자는 외부의 위협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남자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비밀을 여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그럴까?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단,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모른다. 빠지기 전에 그 위험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미인계는 사랑에 빠지게 해서 자신과 민족을 스스로 팔아넘기게 하는 계책이다.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11. 언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였는가*(19)*?

분노했을 때: 민족적인 의분인가, 개인적인 분노인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분노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개인적인 경향을 사용하셨다. 그의 이런 분노를 본 장인은 삼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12. 삿 *14*장에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참고, 민수기 *6:1-4)*

이방 여자와 결혼,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 이방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나실인의 규정에 없는데? 그것은 나실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반인도 지켜야 하는 법이다. 나실인이라면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사기 15 장

1. 사랑한다는 미명으로 비밀을 캐내어 동족에게 일러바친 여자지만 좋아하긴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다. 귀한 선물까지 가지고!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다른 데 시집을 보냈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해서 결혼비용을 다 물어내게 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처갓집을 박살내든지: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질러버린다. 처가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발전(?)한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처가 사람들에게 행한 짓에 대해서 다시 분노하는 것을 보면 처가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블레셋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모양이다.

2. 결혼이 무슨 장난인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아버지 마음대로? 고대에 아버지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던 모양이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는가?

라반이 야곱에게 그랬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는데 삼손의 경우에도 장인이 빙폐(결혼지참금)를 노린 것이었을까? 언니는 양쪽으로 팔아넘겼으니 됐고!

3. 장인이 잘못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아무리 봐도 사사로서 할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가 민족적인 분노로 바뀌어버렸다. 본래부터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다.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도 삼손이라는 결함 있는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가보다.

4. 삼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3)*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이다. 정말 정당할까?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금지된 행동, 즉 이방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것이 근본원인이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그로 인해서 일어난 타인의 잘못만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인가 보다.

5. 한 마리에 한 홰를 달아서 보내는 것과 두 마리를 묶어서 한 홰를 단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 마리에 한 홰를 달면 일직선으로 내리달아서 여우가 불을 쉽게 끌 수도 있겠고 여기저기 불을 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두 마리를 묶어버렸으니 쉽게 달아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곡식밭을 골고루 태운다? 뜨거운 곳을 피하여 다니노라면 정말 골고루 다 태웠겠다.

6. 힘만 세다고 싸움을 잘 하는 것이 아니다. *1,000*명을 상대로 싸우려면 힘도 힘이지만 동작이 빨라야 한다. 삼손이 동작이 엄청나게 빨랐다는 증거가 있다면?

단숨에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으니 보통 빠른 게 아니다.

7. 삼손의 처가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 여인의 배신행위 탓이다: 동족의 협박에 못 이겨 삼손의 사랑을 약점으로 삼고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비극을 당하고 말았다. 동족의 협박에 차라리 당당하게 맞섰더라면 어땠을까?

8. 처가에 대한 원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갓집을 불태우자 삼손이 다시 분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을 처가 식구들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에 왔던 그 친구들이라는 놈들 때문이라고 여겼던 모양이다. 장인이나 처가 식구들에게 직접 분풀이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처가식구들의 원한까지 풀어줄 요량이다.

9. 삼손이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을까? 예전의 개역에는 이 표현이 없고 '크게 도륙' 했다고만 나와 있다.

관용적 표현을 직역한 탓이다: 넓적다리 위의 엉덩이를 쳤다는 것은 '완전하게 파멸시켰다'는 히브리인의 관용적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을 직역하면 좀 이상해지는 법이다.

10. 소라 사람이 왜 엉뚱한 에담 바위에 머물렀을까? 그것도 집에 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식구들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려고...

11. 여기*(10)* 유다 사람들이란 표현은 유다 지파를 가리킬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까?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의 이름이 유다다. 북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유다 왕국이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먼 훗날의 얘기다. 단 지파 사람인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를 못 치지만 동족에게는 그럴 수 있었던 모양이다.

12.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온 것이 참으로 서글픈 일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한 때는 가장 강성했던 지파가 유다였다. 가나안 전쟁에서는 항상 선봉부대였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못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2)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싸움이 끝났다면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이다.

3)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잡아 적에게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족이 동족을 치는 예는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삼별초를 토벌하러 갔던 군대가 그랬다. 전쟁에서 지면 정부군은 끝까지 저항하는 동족을 치러가야 한다. 비극!

13. 삼손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이 무엇인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12-13): 3,000명이나 왔다는 것은 한 판 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순순히 포박을 당하는 것은 동족과 싸울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탄과 싸워야 할 성도들이 성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목사와 목사, 혹은 목사와 장로가 왜 싸우는지 잘 살펴야 한다. 블레셋의 눈 앞에서 유다와 삼손이 싸운다면?

14. 여호와의 영이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에 맞추어서 그에게 임하였을까?

그 소리를 들은 삼손의 분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이나 분노마저 자신의 도구로 쓰신다. 흔히 분노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지만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의 이런 분노가 좋은 도구인 셈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막대기처럼 쓰시지 않고 인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이다.

15. 동족의 손에 묶여 대적에게 넘겨지는 모습과 묶인 밧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대적을 치는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모습: 이 부분만 보면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동기면이나 삶의 방식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16. 하나님의 영은 엄청난 힘이 솟아나게는 하지만 목마름을 해소시키지는 못하는가(18)?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항상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남아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인격마저 자동으로 고상해지지는 않는다. 그럴수록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시다.

17.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사가 삼손이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사사가 되다니!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한다. 삼손이 그러하지 못했음에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윤리나 도덕이 뒷받침 되었더라면 훨씬 더 큰일을 할 수 있었을 테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사사기 16 장

1. 처음에 이방 여인을 보고 좋아한 것은 그래도 사정을 봐줄 수 있다고치자 이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일반인도 해서는 안될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다: 목사가 7계를 범한 셈이다. 부인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생하고 놀아도 괜찮다? 아니다(고전 *6:16)!* 처음 여자를 그렇게 잃었으면 바울의 권고대로(고전 *7:9)* 결혼을 하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 가사(지금의 가자지구)는 블레셋의 가장 남쪽 도시다. 소라에서 약 *60㎞* 떨어진 곳인데 삼손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 지역으로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닌 셈이다. 두려움이나 거칠 것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이런 자신감이 범사에 넘치면 안 된다. 어떤 일에는 이런 자신감이 없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런 자신감이 여자를 상대로 나타날 때 아무 여자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닐까? 소위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빠져들 수 없다. 성문은 대단히 육중하게 만든다. 전쟁에서 이걸 부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 이걸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60㎞* 이상 걸어갔다니... 초인도 보통 초인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했다.

3. 삼손의 힘이 대단했다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을 해보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고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한꺼번에 매려면 무게는 얼마나 될까?

가사는 해변에,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60㎞* 이상 올라가야 한다. 성문은 적의 공격을 견뎌내도록 대단히 육중하게 만든다.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무거웠음에 틀림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힘이다. 성문이 빠져버린 블레셋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다. 골키퍼 없는 골대와 비슷할까?

4.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왜 결혼하지 않고 여자들을 좋아하나? 블레셋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인가?

여인들에게 끌리는 삼손의 취향이 문제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 약점을 잘 알고 스스로 방비해야 한다.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남발하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방향이 정해진다.

5. 들릴라의 한 마디에 그녀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는 없었을까? 더구나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한, 두 번은 장난이라고 치자 집요하게 덤비는 데도 이 여인의 진심이 사랑이 아니란 것을 몰랐을까?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다: 돈을 사랑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사랑에 빠지면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도 꾸역꾸역 걷고 만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안될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돼도*(16)*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다. 호동왕자를 사랑한 낙랑공주가 그랬고, 심프슨 부인을 사랑한 에드워드 왕세자가 그랬고, 우리 마누라가 그랬다.

6. 은 한 개, 즉 은 일 세겔은 *4*일간의 품삯이었다. 그러면 은 *1,100*이면 얼마나 큰돈인가?

*4,400*일의 품삯, *1*년에 *250* 정도 일한다고 보면 거의 *20*년치다. 블레셋에게 삼손이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알만하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랑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한 번 해봐?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흔들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할 텐데 삼손의 행위를 보면 그런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7. 들릴라의 집요한 애정공세에 삼손의 대답이 점점 정답에 가까워진다(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 쓰지 아니한 새 줄,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내 머리가 밀리우면). 아무리 들릴라가 예뻐도 몇 번째 대답에서 멈추어야 했을까?

두 번째: 머리털을 언급하는 것에서 위험한 징조가 보인다. 범죄자가 사건 현장이 궁금해서 멀찍이 접근하는 것처럼! 아무리 유혹이 강하다고 해도 머리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머리털을 밀면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하지 말았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 약점의 어느 부분까지는 언급하거나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가령, 낚시, 바둑, 골프, 고스톱, 운동... 들을 좋아한다면 어느 선에서 자제할 줄 알아야 할지 생각해 보자.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자.

8.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까?

힘이 없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상상이 안 되었을 것이다. 머리로는 상상이 되어도 현실감이 없었을 것이다. 적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자만심이 방심을 부른 탓이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은 언젠가 큰 코를 다칠 날이 반드시 온다. 내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대방을 살살 부추기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한단다.

9.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권력, 미모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10. 삼손의 평소 헤어스타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13, 19)?*

일곱 가닥으로 땋았던 모양이다.

11. 머리카락이 어떻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머리카락은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는 상징일 뿐이다. 머리카락을 밀기 전이라도 나실인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힘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12. 가슴이 설레고 황홀하지만 곧장 패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들릴라의 무릎*:* 항아리의 꿀을 향해 다가가는 파리가 꿀을 맛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마약, 정욕, 돈, 명예, 권력이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휘말리고 만다.

13. 삼손의 어떤 모습이 가장 비극인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쓰는 것*(20)*: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인 것보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반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끈 떨어진 연이다*(롬 1:28)*. 사울이 그랬고*(삼상 15:26)*,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민 14:42)*.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스스로 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정도 밖에 누리지 못한다*!*

14.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영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이나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오직 머리털의 길이와 연관된 것이 흥미롭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귀환의 증거가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머리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15. 삼손이 자살한 것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자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본질을 도외시한 사고방식이다. 본질은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려다 자신도 죽었을 뿐이다. 이런 걸 장렬한 전사라고 하는가*?*

16. 집 구조가 이상하다. 어떻게 두 기둥으로 *30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을 떠받칠 수 있었을까*?*

사방으로 벽이 있어서 지붕을 받치고 가운데 부분에 두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는 방식 아닐까*?*

17.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해도 괜찮은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자신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면 괜찮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니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18.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린 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사사로서 가장 큰 임무를 수행케 하셨다*(30)*: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19. 사사들이라고 도덕적으로 그리 탁월해 보이지 않는다. 나쁘게 본다면 암살자 에훗, 배신자 야엘, 복수에 들뜬 기드온*(8:18-21)*, 잡류의 두목 입다, 바람둥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세태가 그만큼 악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도덕성까지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더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남겨두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느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탓이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20. 삼손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 여자, 반전, 액션*!* 이게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아무리 굴곡도 없이 꾸준히 곧게 하나님만 바라고 산 사람이 훨씬 복되다. 에녹처럼*!* 단지 간증할 것이 별로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사사기 17 장

1.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는 부록같은 얘기가 네 편이 있다. 그 중에 어두운 얘기 *3*편은 사사기에 있고, 한 편은 따로 있다. 무슨 얘기일까*?*

롯기: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책이다. 그러므로 미가와 레위인의 이야기는 삼손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의 어느 한 때의 이야기다. 아마도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일 것이다. 근거는 다음 장에서*!*

2. 은 천백이라*?* 어디서 본 듯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값, 은 일 세겔은 *4*일간의 품삯이었으니 *4,400*일의 품삯, *1*년에 *250*일 정도 일한다고 보면 거의 *20*년치다.

3. 훔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훔쳤다가 돌려주었을까*?*

아마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웠겠지: 아마 이랬을 거다, '어느 놈이든지 내 돈을 훔쳐 간 놈은 대대손손 빌어먹고 살아라'. 그래도 그런 저주*(*주술적인 미신*)*를 두렵게 여겼으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현대인들보다는 낫다.

4. 미가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잘못 가르친 것이 도덕, 신앙, 재물에 관한 것이다. 돈을 훔친 것에 대한 책망이 없고,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용한 방법도 크게 잘못됐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모양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5.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빌어주는 것은 어떻게 우스운 일인가*?*

도둑질한 죄는 무시하고 자수한 것만 칭찬했기 때문*(2)*: 도둑질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다. 군것질이나 용돈으로 쓰려고 훔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훔쳤다가 자수한 건데...*?* 어쩌면 칭찬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그 저주를 임하지 않도록 하려는 주술*(?)*적인 의도가 아닐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6.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신상을 만들었다*(3)*: 정말 제 멋대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롬 *10:3)*. 신상을 집에 두었다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을 집에 모신 걸로 여겼을 것이다. 이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

7. 신*(*하나님*)*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못 하랴*?*

제사장을 세움: 신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이다. 교회당을 세우고 오래 다녔다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여기는 교회의 터줏대감보다 더 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새긴 신과 부어 만든 신이었으니*(4, 18:17, 18*에는 둘 ↔ *4, 18:20, 30* 에는 단수*)* 도대체 무슨 형상이었을까*?* 이스라엘이 만든 전통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송아지인데*(*출 *32:4,* 왕상 *12 28-30)* 아마도 은송아지*?*

8. 미가가 어머니의 막대한 돈을 훔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5*절에서 찾아보자.

개인적으로 신당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다, 이 때에는 실로에 성막이 안치되어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의 복장과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진 우상*)*을 만든 것,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셈이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을 섬긴다. 기독교는 인간중심의 종교가 아니다. 그래도 레위인을 만나서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보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모양이다.

9.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왕이 없는 탓이라고*(6)?* 사사기는 왕을 세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후일에 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0. 레위인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을까*(7-10)?*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터가 사라진 셈이다. 베들레헴은 원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아닌데도*(*수 *21*장 참고*)* 이 소년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 다녀야 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호수아가 죽은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음 장에서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18:30)*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도 문제고,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취업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미가도 문제고...

11. 레위인이 취업을 한 셈이다.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연봉이 은 열이다*(*은 한 개가 *4*일 품삯이라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미가가 훔친 돈이 *1,100*이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껌값이다. 어차피 떠돌이 신세이었으니*!* 한 집안의 제사장이었으니 그 정

도면 괜찮은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가가 훔친 돈은 제사장의 연봉의 110배다.

12. 레위 소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는지는(12)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어떤 성격의 행위인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을 거행한 셈이다. 그러면 자기는 뭐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모세? 헐값에 좋은 목사를 구해왔다고 자랑하는 부자 장로? 그런 다음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13.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한다(사실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 다음 장에 보면 이 소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일종의 혼합주의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들의 사상에 물든 자신의 생각이 뒤섞여 있다. 자기 어머니의 생각과 이렇게 닮았다.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다.

사사기 18 장

1. 사사기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짐작케 하는 증거가 있는가?

1절: 왕이 있던 시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것*(삿 17:6, 18:1, 19:1, 21:25)*은 사사기가 왕정시대에 들어서 기록되었다는 반증이다. 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 왕도 완전하지 않았다. 결국은 진짜 왕이 와야 한다는 말이다.

30절: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앗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것*(대하 28:20)*으로 보고 사사기는 그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런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31)* 그러했다는 말이 증명하는 셈이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던 때*(삼상 4:11)*를 가리킨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기 까지 *20*여년 정도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다.

2. 여호수아가 단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던가?

소라, 아얄론, 에그론, 엘드게, 욥바 등의 맞은 편 지경까지였는데*(수 19:40-46)*, 드보라의 시에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찜이뇨'*(삿 5:17)*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단의 영토가 분명히 해안까지 연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 자손은 이 땅을 누리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에 의해 산지로 쫓겨났다*(1:34)*.

3.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는가? 왜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는가?

목적지나 대상을 정해서 보낸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에브라임 산지*(*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보면 동북쪽*)*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으니*(5)* '유숙'했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가의 집이 그 동네에서는 가장 손님들이 묵어가기 좋은 집 중의 하나이었을 것이다.

4.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뭘 알았다는 뜻인가?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뜻: 그래서 이것저것을 캐물은 것이다. 정탐꾼의 기본 자세이다! 자신들의 본래 사명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그렇다보니*(=*직업병*)*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나중에 그릇된 욕심으로 바뀐다. 혹은 그 전에 이 청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5. 이 젊은 레위인이 제대로 된 제사장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했을까?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 신통할 것까지 있나? 엉터리 제사장 노릇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면 되고, 가끔은 겁도 주고 어려운 해법도 가르쳐주면 될 것이다. 드라빔과 신상을 모시면서도 가끔은 '여호와'의 이름도 들먹이는 것은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으로 여기는 셈이다.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6. 왜 하필이면 거리가 먼 시돈 사람과 비교할까? 비교할 때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 당시에 시돈은 꽤 번창한 도시였다. 위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곳이며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여기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시돈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단의 입장에서는 싸우기도 쉽다. 실제로 라이스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서 아람과 단절되어 있고, 서쪽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시돈과 내왕이 쉽지 않다.

7. 높은 산과 산맥이 적을 막아주는 탓에 라이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적도 없고, 부족한 것 없이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았다. 이것이 복인가, 독인가?

복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을 노리는 악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특별히 더 방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북쪽과 서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대적은 없는데 단 지파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다. 예상하지 못했던 적이다.

8.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벌이고 땅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다*(*신 *31:7,* 수 *1:2-3)*. 단 지파가 라이스를 친 것도 그럴까*(10)*?

말은 하나님*(*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반적인 신이란 개념이다*)*께서 주셨다고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판단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아모리인들에게 쫓겨 도망가지 말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만만한 백성들을 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자기들 눈에 좋았기 때문이다*(9)*.

9. 한 때 단 지파는 *60,000*명이 넘었다. 민 *1:39*에는 *62,700*명, *26:43*에 *64,400*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겨우 *600*명이 싸우러 가는가?

일부가 떠났다고 봐야겠다. 라이스도 그렇게 작은 지역이었던 모양이다.

10. 최종 목적지인 라이스는 꽤 먼 곳이다. 반면에 기럇여야림은 아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진을 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이 곳이 성경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족속의 성읍 중 하나*(수 9:17)*,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처음으로 감동되었던 곳*(13:25)*, 훗날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었던 곳*(삼상 7:1)*이다.

11. 미가의 집에는 몇 종류의 신상이 있었는가?

셋*(14)*: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다. 종교다원주의처럼 온갖 것을 다 섬기는 잡탕인 셈이다! 그걸 탐내는 놈도 있으니...

12. 정탐을 왔던 다섯 사람의 말이 그다지 무섭지는 않아 보이는데?

총대를 메고 나서는 놈은 말이 부드럽다. 그 놈의 말 뿐이라면 버텨도 보겠지만 뒤에 말없이 서 있는 놈

이 더 무섭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참모총장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도 그런 효과를 노린 셈이었다.

13. 다섯 사람이 우상을 강탈하러 들어갈 때는 말리지 않던 제사장이*(17)*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무슨 짓이냐?'고 묻는 것은*(18)* 이상하지 않은가?

다섯 사람이 신당으로 들어갈 때는 경배하러 가는 줄 알고 밖에 나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네?

14. 제사장이 단 지파의 깡패같은 제안을 기뻐하였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원칙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먹고 살자고 시작한 일이니 더 나은 대접을 하겠다면 따라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신앙도, 정의도, 의리도 없다. 그저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할 뿐이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학원의 강사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주 옮겨다녀야 한단다. 돈이 목표라면 그래야 하지만 돈이 목표가 아닌 목사마저 그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제사장이야 어차피 먹고 사는 게 목표였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15.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가?

당연히 후자가 낫다. 단, 정당한 방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제로 끌려간 것보다 못하다. 그런데 제사장이란 자가 기뻐하며 그 길을 갔으니...*(20)*

16. 공갈 협박으로 만든 아버지와 제사장*(19)*도 진짜 아버지요 제사장일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참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모양만 갖춘다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늬만 수박? 수박이 아니란 뜻이다.

17. 점잖게 싸우네*(23, 25)*. 싸움을 왜 이렇게 점잖게 하지?

상대가 안 되니 싸울 의지가 없는 탓이다. 그냥 빼앗길 수는 없고, 도로 빼앗아 올 힘도 없으니 말이라도 한 번 해보는 것이다.

18. 미가는 엄청난 재물을 들여 정성껏*(?)* 신을 모셨다. 그 신이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주었는가?

막대한 손실만 주었을 뿐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복은커녕 그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빠져버렸다*(사 42:17, 44:15-20)*.

19.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는 것은 무례한 짓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패역한 사사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비난받을 짓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수 19:47)*.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문제는 단 지파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면 칭찬 들을 일을 센 민족에게 쫓겨나서 약한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했으니 비난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칠 때는 치고 쉴 때는 쉬어야 하는 법이다.

20. 모세의 손자가 이 모양이라? 모세 손자니까 한 지파의 아비 노릇을 하거나 제사장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 모세의 손자라고 특별대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성경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심하다. *26*살의 김정은은 김정일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21.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모세의 손자는 사이비 제사장 노릇으로 연명하고 단 자손은 그것을 탈취하여 숭배하고...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되고 겨우 흔적만 남은 채 인간의 탐욕만 판을 치는 상태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단 지파가 사라짐: 소라 땅의 단 지파와 이렇게 분리된 이후 단 지파에 대한 기록이 사라진다. 족보투성이인 역대기에 단 지파의 인물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진다*(계 7장)*.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고 백성이 사로잡혀야 이런 혼란이 끝이 난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다.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불러 세워야 할 이유다. 사무엘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먼 훗날 이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로보암이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다. 그러다가 다시 멸망을 당한다.

사사기 19 장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라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적당하게 바꾸어 보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17:6, 21:25)*, 제 멋대로 행하던 때에: 이하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제 멋대로다. 위아래도 없고, 윤리나 도덕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더 강하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된다. 그나마 법이라도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2.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 넉달만에 찾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는 것, 딸이나 아내를 비류들에게 내주는 것

3. 첩을 두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더구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은 도무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왜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는가?

깊고 깊은 산골의 조그마한 교회의 임시 목사라면 우선 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행음하고 돌아가 버린 첩을 뭣하러 찾으러 가는가? 뒤이어 이렇게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진 단초는 이 레위인이 제공한 것이다. 원문에는 '첩이 그에게 대항하여*(against him)* 행음한 것'이라고 되어있다*(NKJV)*. 그래서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간 것이다. 레위인이 먼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다*(↔레 21:7)*. 목사가 먼저 바람을 피우자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린 셈이다. 넉달만에 찾아간 이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된다.

4.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다시 찾아오려는 레위인의 마음은 진심일까?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반갑게 맞아들였으니 진정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합치는 것이 아름다운가? 문제는 간음죄는 그리 쉽게 용서되는 일이 아니란 점이다*(레 20:10)*. 죽을 죄를 쉽게 저지르고 쉽게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증거다. 그것도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5. 왜 이렇게 대접이 융숭하지*(4-9)*? 딸이 잘못한 게 있어서?

아마 그럴 것: 삼 일 동안 대접한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본래 부인을 데려가기 전에 이렇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단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머물라고 하는 것은 과잉 접대인 것은 틀림없다.

6. 그렇더라도 아침에 떠나지 밤에 길을 떠나나?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마도 업무상 아닐까?*(18절 참고)*: 원래 아침에 떠나려던 것이었으니*(5)* 날씨 관계는 아닌 것 같고 *4*박*5*일을 보냈으니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레위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아무리 붙들더라도 뿌리칠 것은 뿌리쳐야 하는데 마지막 날에도 종일 우물거리다가 막판까지 몰린 상태에서 무리수를 둔 셈이다.

7. 첩을 둔 레위인이 이방인의 성읍에는 안 들어간다?*(12)* 어딘가 이상한데?

어떤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것은 무시하는 셈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계명은 지키지 않고 유리한 것은 지킨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이 만든 계명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평소에도 놀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이니까 쉬어야 한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8. 숙박할 곳을 찾아야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숙박할 곳을 찾는다는 신호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숙박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예절이다*(신 10:19)*. 이방인을 피해서 일부러 찾아온 동족을 이렇게 푸대접을 하다니! 기본이 안 되어 있었더라는 말이다.

9. 예루살렘이 왜 이방인의 성읍인가?

본래 여부스인들이 살았다.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여부스인의 성읍이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난 후에 이 성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된다.

10.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면서 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할까*(18)*?

같은 말로 보면 될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거의 산지다*(수 17:15)*.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산지'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쓰인 셈이다. 그러고 보니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본문에 세 번이나 나온다*(1, 16, 18)*. 결국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호와의 집이 있던 실로도 에브라임 경내에 있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은 자신이 레위인임을 나타내는 셈이다.

11. 여물과 양식과 포도주가 넉넉하다는 것*(19)* 은 크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을까?

장소만 제공해줘도 되는데? 혹은 숙박비를 다 내겠다는 데도 거절하더라고 고발하는 격이다.

12. 낯선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손님을 보호한답시고 딸을 내놓겠다는 이런 고약한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더라?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해버려야 할 도시만큼 이스라엘도 악해졌다. 남자들이 남자를 욕보이겠다*(22)*? 도대체 무슨 재미인지, 무슨 악취미인지?

13. 처녀 딸이나 첩은 이렇게 함부로 내줘도 되나?

그만큼 상황이나 시대가 험악했다는 말이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후일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브아 거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량배나 그 마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나그네나 객을 대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시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인가? 딸이나 첩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풍습일 뿐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14. 불량배들이 힘만 믿고 멋대로 설치는 사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사사기는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왕이 필요했다(삿 *17:6, 18:1, 19:1, 21:25*): 그것이 당시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거부한 셈이다.

15. 이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은 레위인 자신이었다. 레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랑했던 첩을 내주었다. 함께 죽는 방법을 택해야 했을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는 살아나더라도 온갖 비난을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레위인이니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6. 이 레위인이 일찍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내어준 여자의 행방이 밤새 궁금하지도 않았을까?

포기하고 도망가려는 모양이다: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라도 찾거나 기다려볼 마음도 없었던 모양이다. 서글픈 사랑이여!

17. 어디다 하소연할 방법도 없던 시절이니 이런 끔찍한 방법 외에는 달리 무슨 수가 없었을 것이다.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훗날 가장 악독한 시대의 대명사로 언급된다(호 *9:9, 10:9*).

사사기 20 장

1. 단에서 브엘세바는 어디를 가리키며 길르앗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요단강 서편과 동편: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혼에게 빼앗은 땅이다. 반면에 단과 브엘세바는 요단강 서편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성읍이다.

2.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 하나님 앞에 모인다면 실로에 모여야 정상일텐데?

사건이 발생한 기브아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 아닐까?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3).*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후 국가적 총회 장소로 자주 이 곳에 모인 것을*(삼상 7:5-12, 왕하 25:23)* 보면 특별한 점이 있는 모양이다*(가령, 지리적인 이점이나 공간적인 이점 등).* 길르앗에도 미스바라는 장소가 있지만*(10:17)*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기브아 북쪽 *7.5km* 지점이다. 어차피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는 것이니 가까운 곳에 모여 위협하려는 것이다. 실로와는 좀 멀다. 그러니까 아예 싸우려고 모인 것이네! 실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다 해두고 물어본 셈이다. 그러니 몇 번이나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1*절의 '여호와 앞'이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뜻이다.

3. 보병이 *40*만 명이면 많은가?

엄청나게 많다. 출애굽 때 전체가 *60*만 명이었다. 한 때 우리나라 군대의 총원이 *60*만이었다. 고대의 대형 전투에도 이만한 인원이 동원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로마의 *1*개 군단이 *6000*명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모인 것이 베냐민 지파의 반발을 초래한 것인지도 모른다.

4. 레위인의 경과보고는 정확한가?

자신의 비겁한 행위*(19:25)*는 빠져 있다: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정도의 교활함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5. 전쟁터에서 제비를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베냐민 지파 *26,700*명을 상대로 *40*만이나 되는 군대가 다 싸우러 갈 필요는 없었을 것: 다른 사람들은 대기 상태에서 군인들의 양식을 조달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군인이라도 자기 양식을 자기가 지참하고 싸웠는데 아무도 자기 장막이나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맹세를 했으니 양식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담시키고 싸움에 나설 사람들을 뽑은 셈이다.

6.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어선 것*(11)*은 장한 일이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징계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 일에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까?

다른 형제를 비난하고 치는 일은 쉬운 탓이다: 초기에 패배를 당하는 것이나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열심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7. 이스라엘이 징벌하려고 하는 대상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가?

베냐민 지파의 반발 때문: 왜 이렇게 반발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단순히 지파별 이기주의 탓인지, 아니면 *40*만이나 되는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겠다. 아이들 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듯이 커져 버렸다. 엉뚱한 자만심도 한 몫 했을 것이다*(16).*

8. 어쨌거나 전체 군인들의 수만 *426,700*명이다*(15, 17).*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데?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 비록 길르앗 야베스 군대가 빠진 숫자이긴 하지만 *(21:9)* 광야에서 계수하던*(민 26:51)* 데에서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9. 왜 벧엘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을 뵈러 벧엘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아*(삼상 10:3)* 산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과거에 이 장소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가?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곳이며*(창 12:8),*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창 28:10)*이기도 하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굳이 우회해서 이 곳을 들른 이유도 조부가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에 대한 기억 때문 아니었을까? 이런 연유로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로는 멀고, 미스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탓이다. 벧엘은 기브아에서 *15km* 거리다*(미스바는 기브아에서 같은 방향으로 7.5km).*

10.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싸웠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을까? 질문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여호와께 질문한 내용이 '싸우리이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였으니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결과를 보면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물었어야*(28)* 옳았다. 머리 숫자만 믿고 부주의하고 오만했던 탓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범죄한 형제의 잘못을 회개케 하기보다는 대적으로 여기고 싸우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형제간의 싸움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이기든 편치 않다!

11.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도 왜 또 질까? *23*절과 *26*절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1*차 패배 후의 눈물*(23)*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울어도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 한 번 실수했으면 빨리 원인을 파악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전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는' 열심이 문제다(22). 진실로 회개하기 이전에는 가라고 한다고 덜렁 가지마라. 이기게 하겠다거든(28) 가거라!

12. 하나님께 여쭈어본 내용이 조금씩 변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18) →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23) →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28): 이 질문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 질문을 먼저 했더라면 가운데 질문은 필요없었을 것이다. 생각이나 자세가 틀렸기에 질문의 순서가 틀린 것이다.

13. 하나님의 언약궤가 벧엘에 있었던가?

아마 전쟁을 위해서 임시로 옮겨온 모양: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운 이래(수 18:1) 훗날 엘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다(삼상 1:3). 엘리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이 때처럼 전투에 불리하자 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기 때문이다.

14.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섰더라(28):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비느하스는 건장한 청년이었다(민 25:7-13).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사 시대의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한 때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했던 열혈청년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늙은 탓인가, 아니면 시대가 변했는가?

15. 베냐민 자손의 입장에서 두 번의 성공이 결국은 대참패의 원인이 된다. 이겼다고 까불 일이 아니다. 반대로 한 두 번 졌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26)와 주의 깊은 태도(29): 숫자만 믿고 함부로 나서던 때와 달리 이제는 작전을 제대로 짜서 군사를 선발하여(34) 매복하고(29) 유인하였다(32). 아이성 전투와 흡사하다.

16. 베냐민 군대의 총인원은 26,700명이었다고 했다(15). 세 번째 전투에서 25,100이 죽었다(35). 그럼 몇 명이 살아남았나?

600(47): 단순 계산상으로 1,600명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최후까지 살아남은 숫자는 600명이다. 이날 이전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42,000명이나 희생될 때에 베냐민 측에 이 정도의 희생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7.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가?

36절부터: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한 뒤에 다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양식이다. 죽은 25,00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18,000 + 5,000 + 2,000).

18. 베냐민 사람들이 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을까(42, 45)?

성읍이 매복조에 이미 점령되었으므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했다는 말이다.

19. 42절의 '각 성읍에서 나온 자'라는 표현이 역본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 보자.

원문은 복수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여기서는 매복조)을 가리키는 표현이니 주격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베냐민 측 군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어차피 베냐민 측 군사도 각 성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애매한 면이 있다.

20. 전투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 다 용사였더라는 말(44, 46)이 무슨 의미인가?

용사였기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 죽으면 죽었지 항복이란 없다,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성격 때문에 다 죽었다는 말이다. 베냐민 지파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용사의 기질 때문이었다.

21. 불량배 몇 놈이 일을 저질렀다가 결국은 내전으로 번져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게 되었다. 아이들 장난이 집안싸움으로 번진 셈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의만 있었던 셈: 일차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있었다. 베냐민 지파의 죽은 사람은 다 용사였단다(46). 싸움을 잘 한다는 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죽을 확률이 수영을 잘 하는 사람보다 낮다.

이차적으로 이스라엘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형제라는 동족의식이 없었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약했다. 결국은 서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운 꼴이다.

사사기 21 장

1. 미스바에서 무슨 맹세를 했다고? *(*베냐민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다*)*

베냐민 지파와 혼인 금지*(1)*,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5)*: 왜 이렇게 거칠까? 함부로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혼인을 금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는 뜻이다. 그 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절단내는 잘못을 저질렀다. 함부로 흥분할 일이 아니었다. 그 때 맹세한 내용의 일부를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인가보다*(3)*. 함부로 맹세한 결과 또 무슨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가?

살육*(10)*, 납치*(12, 21)*: 이런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뜻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걸까?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울고불고... 인생이 그런 건가?

3. 꼭 *12*지파라야 하나? *11*지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없어서 한 가족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경우에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뒤를 잇는*(*계대결혼, 창 *38:8-11*, 룻 *3:9-13)* 이스라엘에서 아예 한 지파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일 수밖에 없다. 소위 완전수라고 해서 *12*를 맞추려는 노력도 성경의 곳곳에 보인다*(*레위나 단이 빠진 상태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제사장의 *24*반열, 천상의 *24*장로, 등*)*

4. 민족적인 내전인데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인다고*(5)*? 좀 흥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런 결정을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할까?

맹세했으니 지켜야겠지만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부인을 구해주기 위해서*(7)*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변명할 기회나 회개를 기회를 주어야 했다.

5. 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나?

옛날 전쟁에서는 그랬단다. 후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야만적이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 *400* 명의 처녀들 외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일까? 훗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사울의 먼 외가인 셈*)*과 사울과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 등장하는 걸로 봐서*(*삼상 *11*장, *31*장*)* 철저하게 전멸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6. 이스라엘이 길르앗 주민을 멸절시킨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여호와 앞에 나아오지 않은 죄' 때문이지만*(5)*, 실상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해결하려는 꼼수다!

7.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자'를 어떻게 구별해 냈을까?

미혼녀라는 뜻일 뿐이다.

8. 벧엘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2)* 길르앗에 군대를 보냈는데 어디로 돌아오는가?

실로*(12)*: 어차피 벧엘은 임시로 모인 장소다. 여호와의 궤가 벧엘이 있었던 것도 임시조치였을 뿐이다.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셈이다.

9.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일차적으로는 베냐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경솔하게 처신한 이스라엘 탓이다. 하나님은 이들의 과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셨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15)*고 하는 것이다.

10. 살아남은 자에게 기업이 있어야 한다니*(17)*, 도대체 기업이 무슨 뜻인가?

본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대를 이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즉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부인이다.

11. 잘못 맹세했으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닐까?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실로 사람들*(*실로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 잘못 맹세해서 저주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해야지 그걸 모면하겠다고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12. 실로의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가? 우리말 번역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쉼표를 두 개만 잘 찍으면 쉬운데.

벧엘 북쪽, 르보나 남쪽, 벧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그러면 르보나와 세겜의 위치는 어떤 관계일까? 르보나는 실로의 서북쪽 약 *5km* 지점으로 세겜의 남서쪽에 있다.

13. 여자를 납치하려는 자들이 왜 하필이면 포도원에 숨어 있을까?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는 절기가 포도 추수와 관련이 있었을 것: 감사절 축제처럼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즐기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각종 과일을 추수하던 장막절*(*수장절, 초막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신 *16:13)*.

14. 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며 위낙 대규모로 벌어진 일이니 쉽게 원인을 파악했을 것: 이런 꾀를 낸 주동자들에게 따졌을 것이지만 그 주동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니 이걸 어떡해? 아마 장로들의 설득이

먹혀들었을 것이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이전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다.' 등등!

15. 사사시대의 이런 혼란이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왕이 없어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탓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때 그걸 제어할만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고 그것을 응징하는 과정이나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보다.